

2022 08

Vol.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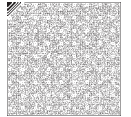
이
것
+
한
것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창작집단 인사리 <끼리>(서울 스테이지11) |
배리어프리 인형극 | 2022



이달의 아티스트



한지혜

창작집단 인사리 대표·연출가·배우

—— ‘인사리’란 ‘벗하다’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다.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진 다양한 예술가가 모이는 창작집단 인사리는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주저함 없는 사회를 꿈꾼다. 여기(최병대) 작가의 그림책 <콧물끼리>를 모티프로,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21 예술로 상상극장’을 통해 제작된 <끼리?>는 코가 없이 태어난 코끼리 ‘끼리’가 코 대신 생긴 콧물로 자신만의 놀이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배리어프리 작품이다. 끼리는 초원에 건기가 찾아와 코끼리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자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서는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끼리의 모습을 통해 관객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경계를 없앤다면서 또 다른 경계를 만들고, 편견을 없앤다면서 편견을 쌓아가는 작업의 반복이었다.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계를 받아들이고 바로 보는 일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에 배리어프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

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대본으로 만들고 그것을 무대 위에 구현하는 작업은 시작에 불과했다. 배우는 자신이 맡은 인형을 조종할 때 수어 배우와 동선을 함께하기에 손짓말을 하는 수어 배우와 인형을 가리지 않도록 동작의 정도나 크기를 결정해야 했다. 조명감독은 문자 서비스를 위해 조명의 조도를 조율해야 하는 동시에 수어 배우의 손짓과 표정이 어둠에 가리지 않도록 또다시 조도를 조절해야 했다. 코로나19로 방역에 엄격하던 시기, 시각장애인 관객이 왜 공연 전 소독한 극장에 먼저 들어와 무대와 인형을 직접 만져보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지 극장 관계자를 설득해야 했다. 무언가를 계속 자문하고 결정하고 “아!” 하며 깨닫고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공연을 함께만 들어가는 수많은 동료와 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배리어프리가 선행됐다. 그리고 장애·비장애 관객이 같은 시간, 같은 극장에 머물며 눈빛을 나누고 같은 예술을 향유할 때 그간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벅차오르는 가슴, 목구멍에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를 눌러 삼키는 순간. 누군가는 감성적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감성 때문에 우리가 고단한 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극장에서 마주하는 서로가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세상을 꿈꾸며, 같은 꿈을 꾸는 더 많은 동료와 만나고 싶다.

Contents

2022 08 Vol. 186

커버스토리

00 — 01

이달의 아티스트 한지혜



테마 토크

원본의 가치를 인증하다

칼럼 1

06 — 07

디지털 창작물의 유통 혁신, NFT 아트

칼럼 2

08 — 11

NFT 아트의 세계

리포트

12 — 13

NFT와 저작권

스낵

14 — 15

서울문화재단의 NFT 관련 사업

이슈+서울

이슈 1

16 — 19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쟁점

이슈 2

20 — 23

K-클래식 현상의 주요 요인과 이면의 문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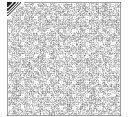
편집 총괄 이규승,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오니트(주)(장보영,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장가은, 신제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124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2년 7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트렌드+서울

문화인 24 — 29

아티스트 이랑

정연석의 서울 산책 30 — 33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공감 1 34 — 35

뮤지컬 〈포미니츠〉와 〈유진과 유진〉

공감 2 36 — 37

전시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과 〈에바 알머슨, Andando〉

서울 찰나 38 — 39

이야기+서울

지하 미감 어드벤처 40 — 41

역사驛舍에서 배우는 동네의 역사歷史

최재훈의 씨니컬 42 — 43

Cine_Col: Cinema Column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윤종강의 국악 실록 44 — 45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암성暗聲과 아귀성

웹진 [비유] 46 — 47

소박하고 사소한 시작

웹진 [연극in] 48 — 49

프로젝트그룹 SAVE 〈방문자들〉

웹진 [춤:in] 50 — 51

온라인과 메타버스에 대한 좌담

8월의 서울문화매뉴얼 52 — 58

편집후기 60



이미나
서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테마 토크

NFT

ERC-721



opensea

0 1 1 1
01001011 0 100001 0
1 01001000000 10 1 0



beeples



원본의 가치를 인증하다

NFT 아트

NFT 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들어는 봤지만 '대체 NFT가 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NFT는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NFT라는 신기술이 디지털 저작물의 원본과 복제본을 구별해 주면서
디지털 창작물 시장에 혁신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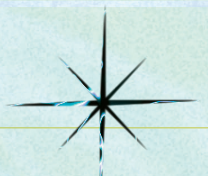
디지털 저작물 창작자라면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NFT 작품을 발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소유하고 싶은 NFT 작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NFT 아트의 등장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도 변하고 있다.

NFT 아트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해 보고 NFT와 저작권 문제,

서울문화재단에서 발 빠르게 준비한 NFT 관련 사업을 만나본다.



NFT 아트란 무엇인가?

디지털 창작물의 유통 혁신, NFT 아트



김환기 작가의 작품 <우주Universe>가 NFT화돼
총 3점이 약 7억 원에 낙찰됐다. 실제 존재하는
원본 작품을 NFT화해 판매한 대표 사례 중 하나다.

Ethereum



매해 글로벌 미술 잡지 《ArtReview아트리뷰》에서는 한 해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100인’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미술계 영향력인데 2021년 파워100인의 1위 자리에 인간도, 그룹도, 특정 경향도 아닌 무언가가 올랐다. 바로 ‘ERC-721’로 이것은 이더리움Ethereum¹에 기반한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기술 표준 규약이다.

디지털 데이터는 어떻게 NFT 아트가 되는가?

‘무단’ ‘무한’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데이터를 창작자가 NFT로 저장한다면 무수히 많은 동일 데이터 중 창작자가 만든 원본original을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자동으로 창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원본과 무단 복제된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만들고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 희소성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NFT라는 신기술의 등장은 디지털 창작물이 지니고 있던 무단, 무한 복제 문제를 해소하며 디지털 창작물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현재 제작되는 NFT는 제작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대표적 형태로 NFT 컬렉터블, PFP², NFT 아트 등이 있다. 그중 NFT 아트에는 디지털로 제작된 다양한 시각적 창작물이 포함되는데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짧은 동영상, 디지털 아트 등 상업적 목적을 지닌 창작물에서 순수 창작품까지 상당히 광범위하다.

특히 NFT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기존 주류 미술계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NFT를 적용하는 움직임을 낳았다. 그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 작가들이 디지털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NFT화하는 것으로, ‘태생적으로 디지털natively digital’인 작품을 NFT화하는 것이다. 둘째, 물리적 원본 작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원본의 데이터를 활용해 리미티드 에디션 NFT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유족이 소장품의 이미지를 활용해 NFT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유형이다.

지난해 NFT 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0년 약 8250만 달러이던 NFT 거래 총액은 2021년 약 215배 넘게 성장해 약 177억 달러가 됐다. 물론 이 판매 금액은 NFT 아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NFT를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NFT 시장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것들이 NFT 아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희소성’과 ‘원본성’을 보장하는 NFT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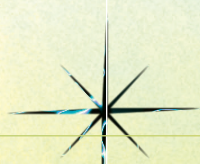
하지만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작품이나 BAYC Bored Ape Yacht Club의 원숭이 캐릭터 같은 일부 고가에 판매되는 NFT 아트 사례는 너도나도 NFT 아트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장했고, 구매자 사이에서는 NFT 투기 열풍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암호화폐 가치의 급락과 함께 NFT 아트 시장의 거품도 차츰 걷히고 있다. 모든 디지털 창작물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아트’라는 이름으로 뒤얹혀 거래되고 있기에 우리는 ‘아트’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이 확장은 창작자의 원본에 있지, 그 창작물이 추구하는 형식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일반화, 대중화될수록 기술 자체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개념이 중요하다.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의 매체 속성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사진 기술의 신기함보다는 그 사진이 제작된 목적과 그것이 담고 있는 개념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진정한 예술’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한, 상업 목적의 창작물과 예술 목적의 창작물은 명확히 구분된다. 예술의 가치가 상업적 성과와 혼동돼서는 안 된다.

현재 NFT 아트는 NFT의 형태로 변환돼 저장된 디지털 창작물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렇기에 디지털 창작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혹은 디지털 창작물의 원본성을 보장하면서 무단 복제를 방지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NFT 아트는 계속 제작될 것이다.

¹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 비탈릭 부테린이 창안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이 플랫폼의 자체 통화 이름이다.

² PFP란 Profile Picture의 약어로, NFT 사용자들이 소셜 플랫폼에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NFT의 한 유형이다.



NFT가 문화예술계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

NFT 아트의 세계

2021년 3월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디지털 그림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69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785억 원)라는 사상 초유의 가격으로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 낙찰되면서 NFT 예술품 시대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후 1년 5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마냥 생소하기만 했던 NFT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변화했고, 동시에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NFT 기술이 미래에 가져다줄 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NFT와 함께 탄생한 가상세계 미술품의 가치가 거품과 허상이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제도권의 검열을 거치지 않는

진정한 ‘소셜 아트’ 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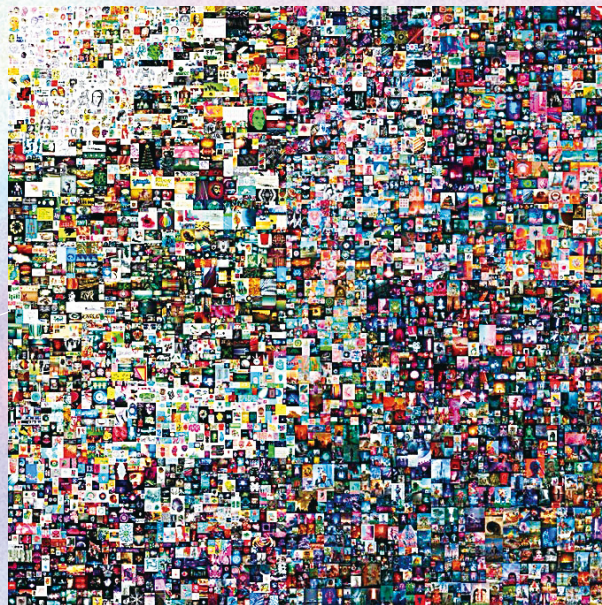
우선 긍정적 측면으로는 수많은 창작자의 작품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진정한 ‘소셜 아트Social Art’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그동안 창작자가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같은 제도권의 심사, 규율, 관습이 필요했다. 기성 작가들이야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신진 작가들에게 일종의 벽과 같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NFT 시대와 함께 태어난 오픈시opensea.io 등과 같은 국내외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장소가 가진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작품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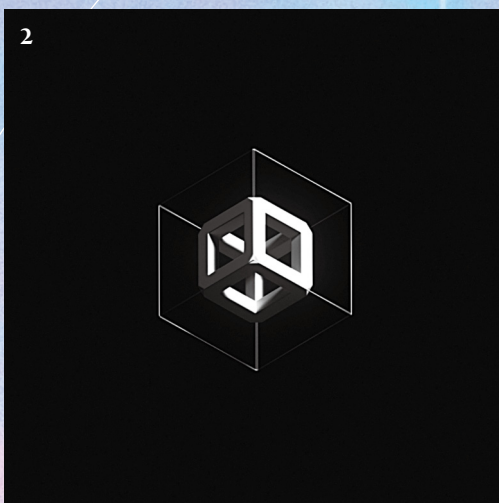
실제로 지금까지 작품 한 번 선보이지 못한 수많은 예술가가 일반인과 창작물을 거래하면서 기존의 미술시장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컬렉터층이 생겼고, 젊은 MZ세대에게까지 미술품 수집

- 1 비플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2021)은 하루에 하나씩 만든 이미지를 5000일 동안 조합해 완성한 콜라주다.
- 2 아티스트 팍(Pak)의 디지털 아트가 소더비 경매를 통해 약 190억 원에 거래됐다.
- 3 김일동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달마>(2009)
- 4 중학생 NFT 아티스트 아트띠프의 <play game>(2021)

Social Art

1





붐이 일어났다. NFT 작품에 대한 관심은 실제 미술품으로 이어지면서 아트페어 혹은 갤러리와 같은 오프라인 미술시장 역시 성장했다.

이러한 신호탄과 함께 일반인이 만들어낸 디지털 창작물 역시 주목받게 됐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깜짝 이벤트를 벌이며 디즈니랜드에 가자고 하자 기뻐하는 소녀 클로이의 결혼질하는 표정이 밈meme, 2차 창작물 또는 패러디물로 제작돼 8,700여 만 원에 거래됐고, 그 밖에도 '찰리가 날 물었어' 같은 다양한 밈이 고가에 거래됐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동안 제도권 미술계에서 기회를 찾지 못했던 여러 창작자가 작품을 발표하며 좋은 거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스스로 커뮤니티를 구축해 온 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중학생 NFT 아티스트 '아트티프ARThief'가 아이폰드로 그린 그림까지 실거래돼 이목을 끌었다.

필자는 지금의 NFT 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전인 2009년부터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초, 이전에 작업해 둔 작업물 몇 점을 세계적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 처음으로 올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세계에서 거래된 작품은 2009년에 디지털 그래픽으로 작업한 <108달마도> 시리즈 중 한 작품이다. 당시 전문작가가 아니었음에도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큰 미술관에 초청됐다. 미술계에서 활동 이력 없는 필자와 같은 창작자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를 계기로 NFT가 야기한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그동안 작업해 둔 작품에 이어 새롭게 작업한 작품을 연이어 발표했고, 한국 기업이 만든 다양한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108달마도> <시공상상> 시리즈 등 과거에 작업한 디지털 작품이 NFT 시대를 맞아 그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1917년, 마르셀 뒤샹이 선보인 평범한 변기 하나가 '개념미술'이라는 새로운 미술사적 사조를 탄생시켰다. 대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치를 만들어낸다. 지금의 NFT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일 것이다.



NFT를 넘어 예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

NFT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많이 거론되는 것은 NFT 붐 속에서 천문학적 금액에 거래된 미술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사건이다. 트위터의 창업주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¹이나 이더록EtherRock³ 등은 처음 거래 당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호가했으나 재거래 시 몇십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이 매겨졌다. 국내의 대표적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발매된 수많은 아티스트의 작품 역시 재거래가 되지 않으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 NFT로 인해 탄생한 모든 것이 거품과 허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자칫하면 NFT 미술품이 가상세계 자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빠른 유동성을 지닌 투자수단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NFT를 포함한 모든 예술품이 가치를 갖게 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이해의 부족, 그리고 NFT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주는 인식의 혼돈으로 인한 단편적 해석일 여지가 크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하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NFT 미술품 또한 실존하는 미술품과 가치가 형성되는 원리와 근본은 일치한다. NFT 미술품에 진정한 가치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의 부단한 노력이 기본이 되는 것과 함께 컬렉터 또한 이러한 가치의 근본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선 미술품에 대한 투자는 코인이나 주식처럼 유동성이 빠른 다른 자산과 성질이 완전히 다를 수 이해해야 한다. 지금 구매한 코인은 손익 계산에 따라 금방이라도 되팔 수 있지만 예술품은 그렇지 않다. 작품에 가치가 생기려면 작가와 작품의 스토리와 의미가 알려지고 그 진정성이 대중에게 이해되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는 소신 있게 작품 활동에 매진해야 하며 컬렉터는 이슈와 붐에 따라 작품을 성급하게 선점하기보다 그 스토

리와 철학을 이해하며 작가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컬렉터가 하나둘 늘어나면 어느새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커뮤니티는 성장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끈끈하게 성장한 작가의 커뮤니티가 기반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급격한 NFT 작품 가치의 하락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성과 측면으로만 본다면 성장 속도에 비해 느린 유동성에 자칫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작품을 소장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NFT 작품의 경우 디지털 액자나 출력을 통해 자신의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고, 작가가 이끌어가는 다음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기대하며 함께 공감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미술 작품의 가치는 그것을 알아보는 이들에 의해 점점 탄탄하게 형성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흐나 앤디 워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커뮤니티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기에 그 가치의 크기와 규모 역시 세계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미술품 컬렉팅의 성공은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며, 한번 형성된 가격은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발걸음이 지속된다면 세상이 반드시 그것을 알아보는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NFT 시대의 화려한 서두를 연 비플 역시 15년 전 디지털 아트가 지금처럼 각광받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저 열심히, 꾸준히 뛰어다니던 어느 무명 아티스트였을 뿐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비디오작가 백남준이 지금의 미디어 시대를 먼저 예견한 것과 같은 이치다.

앞으로 NFT 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이슈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슈와 사건이 발생했고, 우여곡절 끝에 NFT 미술품이 가진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NFT 예술이 미래에 얼마만큼 의미 있는 지표로 만들 수 있을지는 창작자와 컬렉터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글 김일동_미디어 아티스트, 《NFT는 처음입니다》 저자 | 사진 제공 김일동

¹ 트위터 창업주인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 NFT는 전 세계 첫 트위터 메시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2021년 290만 달러(약 35억 원)에 팔렸지만 1년 만에 280달러(약 34만 원)로 주저앉았다.

² 이더록은 '애완용 블록체인 바위'를 표방하는 그래픽 파일로, 2017년 이더리움 기반의 NFT로 발행됐다.



5 패션 브랜드 아디다스가 NFT 프로젝트 BAYC(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와 협업한 한정판 NFT 아바타 '인디고 허츠'

6, 7 사치아트(Saatchi Art)의 2022년 1월 프로젝트 'The Other Avatars'에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에서 영감 받아 다양한 스타일의 아바타 시리즈를 NFT 아트로 만들었다.



Opensea. 

디지털 저작물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NFT

NFT와 저작권

세계 최초로 NFT를 만든 사람은 뉴욕대학교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아티스트 케빈 맥코이(Kevin McCoy)로 알려져 있다. 예술가에 의해 태동한 NFT는 이후 대퍼 랩스(Dapper Labs)에서 발행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NFT를 시작으로 디지털 저작물 등에 대한 원본성을 검증 및 보장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NFT, 저작물의 메타데이터를 담은 일종의 ‘증명서’
A라는 사람이 예술적 혼을 다해 어떠한 디지털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앞에서 언급한 최초 파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과는 별도로 그 최초 파일 자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된 모나리자 원본이 그 저작권의 효력 기간이 다했으나 아직까지 엄청난 가치를 갖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의 창작물은 그 형태가 컴퓨터 파일이므로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 복제본들과 최초 파일을 구분할 수 없다. 결국 최초의 디지털 저작물(파일)의 가치는 기술적으로 담보될 수 없고, 창작자는 그만큼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최초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본과 기술적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기초로 거래 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최초 저작물 파일의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올린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고(이것은 유일하다), 이 유일한 증명서를 사고팔 수 있다면 디지털 저작물 창작자도 마치 현실 세계에서 그림 원본을 파는 것처럼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NFT는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구현했다. 앞선 사례에서 최초 저작물 파일의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올린 후 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민팅(Minting, 본래 화폐 등을 주조한다는 의미의 단어로 NFT를 발행하는 과



Copyright

위쪽이 주재범 작가의
픽셀아트 작품
〈모나리자〉이고 아래쪽이
오픈시에서 판매 중인
〈모나리자〉다.

Create New Item

* Required fields

Image, Video, Audio, or 3D Model *

File types supported: JPG, PNG, GIF, SVG, MP4, WEBM, MP3, WAV, OGG, GLB, GLTF. Max size: 100 MB

Name *

Item name

External link

OpenSea will include a link to this URL on this item's detail page, so that users can click to learn more about it. You are welcome to link to your own webpage with more details.

<https://yoursite.io/item/123>

오픈시 민팅 화면(<https://opensea.io/asset/create>)



정을 뜻하기도 한다.'이라고 하고 이 증명서를 NFT라고 한다.

NFT에는 저작물의 이름, 저작물에 대한 설명,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등 그 디지털 저작물의 최초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메타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NFT가 디지털 저작물 자체라거나 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NFT가 최초 파일임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럴 필요도 없고 디지털 파일의 속성상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contains'는 'your ART'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지 'your ART'를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다.



NFT가 NFT 연계 콘텐츠의 원본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NFT가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NFT가 'your ART'와 관념상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즉 앞선 사례에서 A가 자신의 저작물을 민팅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A와 무관한 B라는 사람이 A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또는 A의 허락 범위를 넘어서) 민팅하고 그 NFT를 유통시장에 내놓으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NFT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사례

실제 이종섭, 박수근, 김환기의 NFT 작품 경매를 계획했던 업체는 저작권자들과의 저작권 협의 및 진위 논란에 휩싸여 경매를 취소

한 적이 있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NFT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최초 저작물을 변형해 NFT 사업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허락을 받더라도 최초 저작물을 변형하는 것은 그 허락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개작권'이라고도 했다.

미술품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같은 건축 저작물도 마찬가지다. 실제 많은 게임 회사가 건축물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메타버스에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창작성 있는 건축 저작물을 건축가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하고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작인격권의 문제, 디지털 저작물을 여러 사람이 만들었을 때 공동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 NFT 거래 플랫폼 사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 문제, 올해 6월부터 시행된 퍼블리시티 침해 행위(유명인의 초상 등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와 맞물린 새로운 분쟁 가능성 등 NFT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저작권법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NFT는 소유권 판매 이력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위작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술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NFT를 활용해 보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증빙은 물론 실물 자산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NFT는 기술 발전이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디지털 저작물이 가진 한계를 허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법 역시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kcopa.or.kr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mcst.go.kr 내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PDF 파일 url.kr/dxp3ae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도 NFT가 낯선 당신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의 NFT 관련 사업



이제 NFT가 뭔지도 알았고 NFT의 명암과 저작권 관련 유의 사항도 숙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NFT와 예술 작업을 연결 짓자니 막막하기만 하다. 이럴 때 도움을 줄 만한 기관은 어디 없을까?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NFT 관련 사업 두 가지를 새롭게 운영한다. 각 사업은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 발맞춰 예술인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진입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민팅Minting 실습부터 작품 기획까지

<META SAPY : NFT> 기초강의/집중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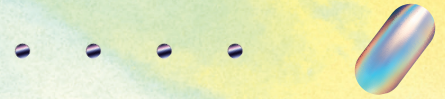
NFT로 작품 창·제작을 고민하는 청년예술인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META SAPY : NFT>를 운영한다. NFT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는 와중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청년예술인들이 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META SAPY : NFT>는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먼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NFT 기초강의가 있다.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팀 유튜브 채널 youtube.com/c/청년예술팀sapy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NFT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강의는 두 편으로 나뉘어 각각 'NFT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 'NFT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다룬다. 뒤에 나올 NFT 집중워크숍에 참여하려면 NFT 기초강의 사전 시청이 필수다.

또 다른 트랙은 NFT 집중워크숍으로, 강의와 더불어 미션 수행(실습)과 토론 및 피드백이 함께 진행된다. 4회차 과정 동안 참여자는 NFT의 경제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민팅Minting을 실습해 보며 NFT 커뮤니티 채널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다. NFT 집중워크숍은 7월에 1기 운영과 2기 모집을 마쳤다. 한 기수당 7명 내외로 참여자를 선정하며 3기는 8월 중, 4기는 9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기초강의와 집중워크숍과 별개로 8월부터는 포럼과 세미나도 열린다. 현재 NFT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과 함께 NFT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담론을 공유할 예정이다. 기초강의와 집중워크숍, 이어지는 포럼과 세미나에 대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sfac.or.kr과 청년예술팀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ap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ting



- 1 <META SAPY : NFT> 기초강의 2편 캡처 화면
- 2 <META SAPY : NFT>는 온라인 기초강의와 오프라인 집중워크숍으로 구성돼 있다.
- 3 카페 쿼드에 마련된 NFT 갤러리. 현재는 실제 작품이 아닌 예시 이미지가 게시돼 있다.



예술인의 사진을 NFT 작품으로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론칭 사업>

서울문화재단이 최근 국내 NF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갤럭시아에스엠-갤럭시아넥스트와 손잡고 예술인 NFT 발행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2022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정책 방향에 발맞춰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의 NFT 제작부터 발행과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격 운영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에는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각예술 분야에 비해 NFT 시장 진입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연극·무용·전통예술·음악계의 예술인 30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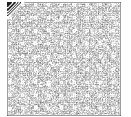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모습이 담긴 NFT가 제작되고 나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전시된다.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센터에 조성한 카페 쿼드의 한쪽 벽면은 NFT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활용된다. 이번 NFT 론칭 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 역시 카페 쿼드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내 NFT 플랫폼 및 메타갤럭시아MetaGalax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타갤럭시아는 갤럭시아넥스트와 갤럭시아에스엠이 운영하는 NFT 플랫폼으로 작품 거래와 유통이 가능하다. 작품이 판매되면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참여 예술인에게 돌아간다.

예술인 NFT는 8월부터 9월까지 제작 과정을 거쳐 10월에 전시와 유통을 개시한다. 올해 시범 운영 종료 후에는 장르와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극인들은 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반대하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쟁점



— 지난 6월 24일 서계동 국립극단 잔디마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 중인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연극인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연극단체들의 성명서 낭독과 자유 발언으로 진행됐는데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임대형민자사업¹의 상업성,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공간의 정체성 없음, 국립극단 정책 부재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의 근간에는 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이 놓여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것은 문체부가 지난 5월 25일과 26일 연극계와 이의 장르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공청회(2차)에서였다. 이미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건물을 짓고 운영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둔 때였다. 집회가 열린 6월 24일에는 국립극단 소극장 관에서 장르를 나누지 않은 문체부의 3차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날 집회를 개최한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체부 계획에 항의하는 뜻에서 3차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계동 기무사 창고터의 우여곡절

문체부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공간과 예술인 전용 행복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예술공간은 임대형민자사업으로, 행복주택은 민간 참여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결론, 아니 이러한 계획에 이르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현재 국립극단이 사용하는 서계동 부지는 국방부가 기무사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다. 국립극단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2010년으로, 국립극단이 국립극장 상주단체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기무사가 사용하던 창고를 개조해 백성희장민호극장과 소극장 관, 그리고 연습실 두 곳을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 국립극단 독립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 단원제 폐지도 쟁점이었다. 반대가 있었지만 백성희장민호극장 명명으로 국립극단 원로배우를 예우하고 단원제 폐지 이후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무마됐다. 하지만 국립극단이 기무사 창고에 처박혔다는 비판부터 시설 자체의 문제까지 공간의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두 극장이 개관하고 공연이 올랐을 때 창고 건물이던 이곳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바로 옆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리 등 소음이 종종 극장 안으로 파고들었다. 준비 없는 분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¹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하여 BTL 사업이라고도 한다.

우여곡절은 국립극단 운영에만 있지 않았다. 국립극단 이전 이후 공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소유권, 도시 계획 등 여러 문제가 얹혀 있었던 것. 먼저 소유권이다. 2016년 문체부는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국 유재산 유상관리 전환). 그 와중에 2017년에는 서울시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하면서 용적률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2019년에는 문체부와 국토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행복주택 연계 개발을 확정한다. 예산 확보의 과정도 있다.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8년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2020년 민자사업 한도액 국회 승인(1,040

억 원), 2021년 민자사업 한도액 증액 국회 승인(1,244억 원), 2021년 민간투자심의 등을 거친다.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인 만큼 문체부의 정책 결정만이 아니라 지자체, 타 부처와의 조율과 예산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사업 진행의 복잡한 절차에서 정작 그 공간을 사용할 시민, 예술가들과의 논의는 빠져 있다. 3차 공청회에서 왜 이렇게 뒤늦게 공청회를 여느냐는 참여자의 질문에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예술국장은 공청회 개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이 문제인가, 행정이 문제인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용극장

6월 24일 개최된 3차 공청회는 2차 공청회에서 나온 비판에 대한 추가 설명에 가까웠다.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지만 소유권은 문체부로 이전되며 20년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국고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체부의 설명에 따르면 준비한 상업공간 사이에 더부살이하는 극장이라는 연극계의 우려는 세부 공간 조성부터 운영까지 어떠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다.

한편 공연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면서도 중극장·소극장은 국립극단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현재보다 시설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체부 예술국장의 구두 설명 외에 공청회 자료 어디에도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서 국립극단 정책은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공청회에 참여한 장르별 단체에서는 각 장르 전용 공간 부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청회의 이러한 진행은 매우 우려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체부가 장르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공청회 현장에서 지적됐다. 연극계의 비판을 장르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계획1

구분	주요 시설
공연시설	대극장(1,200석), 중극장(500석), 소극장(100석, 200석, 300석)
복합문화시설	전시실, 도서관, 자료실, 창작공간 등
업무시설	운영기관 및 국립극단 사무실, 민간임대 공간 등
판매및근생시설	식당, 카페, 판매점 등 민간수익시설
행복주택	예술인 전용 행복주택 1~2인용 200호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계획2

구분	조성 계획	면적
대공연장	• 1,200석으로 구성 •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에 적합하게 계획	6,873㎡
중공연장	• 500석으로 구성 • 연극, 중·소 규모 공연, 콘서트 등에 적합하게 계획	4,774㎡
소공연장	• 100석, 200석, 300석으로 구성 • 연극, 소규모 공연, 실험극, 독주회 등 • 블랙박스 형태로 200석과 100석은 단독 또는 혼합 사용, 창작을 위한 다양한 객석 형태와 무대 구성	5,539㎡



연극계가 요구하는 국립극단 전용극장은 장르 이기주의인가. 공청회 현장에서 앞다퉈 나왔던 것처럼 공연예술 현장은 항상 극장 부족을 이야기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작 과정에 충분히 투자하고 관객들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극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전용극장에 대한 요구는 배타적 사용권 주장이 아니라 완성된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기 전 창작 과정을 폭넓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관현악단을 전속단체로 두고 있는 국립극장은 지난해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이 기간 극장 마당 지하에 전속단체들의 연습 공간을 증축하는 공사도 수년간 함께 진행했다. 전용극장, 창·제작극장에 대한 요구는 단지 시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골고루 나눠 쓰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국립극단. 연극계에도 국립극단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 국립극단 위상 폄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다. 국

립극단의 위상은 크고 화려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 창고 건물을 개조한 극장에 오른 그 많은 작품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린 예술가들, 공연을 함께 지켜본 관객들, 그리고 공간 운영과 제작에 투입된 국민의 세금. 그 시간을 밀어내고 국가가 (임대형민자사업을 우회해) 국민의 세금으로 크고 시설 좋은 무언가를 만들 것이고 거기 어딘가에 국립극단이 사용할 수 있는 극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이다. 국립극단은 그저 국가의 세금만 투입되면 푹푹푹 공연을 만들어내는 공장인가 말이다.

글 김소연 연극 평론가, 《문화정책리뷰》 편집장

사진 제공 한국연극협회, 국립극단

1 지난 6월 24일 국립극단 앞마당에서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건립 계획' 향의 집회가 열렸다.

2 손정우 한국연극협회장이 공공극장 위상에 맞지 않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국립극단 서계동 부지는 국방부가 기무사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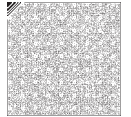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연주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세계가 주목하는 K-클래식의 오늘

K-클래식 현상의 주요 요인과 이면의 문제

— “요새는 유튜브가 발전해 다른 사람 연주를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좋았던 연주를 따라 하게 돼요. 하지만 인터넷이 없던 시대의 옛 음악가는 악보와 자기 자신 사이에서 음악을 찾은 사람들이라 독창적 음악이 나올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한국이 클래식 강국이 된 이유

최근 한국의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해외 유수 콩쿠르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국위를 드높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북미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뱅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18)이 최연소로 우승했고,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벨기에 쾨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리스트 최하영(24)이 한국인 최초로 첼로 부문에서 우승했다. 앞서 5월에는 핀란드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27)가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도쿄 국제 비올라 콩쿠르에서 비올리스트 박하양(23)도 한국인 최초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고, 위재원(23)과 윤소희(27)가 미국 워싱턴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과 비올라 부문에서 각각 우승 대열에 합류했다.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바순 부문에서는 같은 이름인 두 명의 김민주(26)와 김민주(23)가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다.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열린 25개 콩쿠르에서 젊은 한국인 연주자 37명이 입상(1~3위)하는 영광을 안았다. 피아노·바이올린·성악 등 서양 문화의 꽃을 한국인이 활짝 피운 셈이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해외 유학 경험이 전무한 순수 국내 파로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괴물 신동’ 임윤찬 신드롬이다. “우승했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덤덤하게 말한 예술에 대한 겸허한 자세와 맞물려 임윤찬이 결선에서 보여준 신들린 듯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는 이 곡 연주를 담은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2020년 녹음한 그의 피아노 음반은 서점가 클래식 음반 판매 1위에 올랐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을 이을 천재 피아니스트의 출현에 흥분한 전국 공연장은 앞다퉈 출연을 요청했다.

임윤찬의 스승 손민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음악가들의 뛰어난은 이제 더

는 뉴스가 아니게 됐다”라며 “저보다 젊은 음악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본인의 경험을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 한국 음악의 미래는 밝다”고 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세계 문화의 변방이던 한국이 어떻게 클래식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술계에서는 동네 음악 학원에서 시작된 특유의 교육열과 한국예술종합학교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 교육, 금호문화재단 등 기업의 역할과 국제 콩쿠르 1·2위에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 등을 꼽는다. 최근 입상자들의 선배 격인 젊은 거장 손열음(36)과 조성진(28) 등도 모두 5~7세 때 동네 음악학원에서 처음 악기를 다룬 경험이 있다. 예체능 학원들이 원석을 골라내면 한예중 등 국가 영재교육 시스템이 이들을 보석으로 가공하고 기업이 후원했다. 특히 금호문화재단은 1998년 시작된 금호영재콘서트를 시작으로, 1999년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등 클래식 음악가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무대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 클래식 음악의 대표적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임윤찬뿐 아니라 피아니스트 김선욱·김태형·문지영·선우예권·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김동현·김봄소리·박혜윤·이지윤·임지영,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고봉인·문태국·이정란·한재민, 플루티스트 조성현 등 1,000명이 넘는 음악가가 금호콘서트 무대를 통해 성장했다.

K-클래식 과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올해 8월부터 색다른 클래식 음악 축제가 애호가들을 기다리고 있어 국내 클래식 열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롯데문화재단은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클래식 레볼루션 2022 멘델스존&코른골트’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1809~1847)과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1897~1957)를 집중 조명하는 이 축제는 크리스토프 포펜이 예술감독을 맡는다. 8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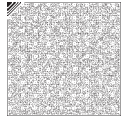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가운데)과 입상자들

일에는 임윤찬이 협연자로 KBS교향악단과 함께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주고, 피아니스트 김선옥이 지휘를 맡는다. 이 밖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지윤, 비올리스트 박경민, 피아니스트 김선옥·이혁 등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국내 음악가가 대거 이 축제에 참여한다. 세종솔로이스츠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주최하는 ‘2022 히엡넝크! 페스티벌’도 빼놓을 수 없다. ‘히엡넝크 Hic et Nunc’는 라틴어로 ‘여기 그리고 지금’을 의미하며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강경원 세종솔로이스츠 총감독이 주도하며 롯데콘서트홀,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일신희, 서울대학교 등지에서 열린다. 비올리스트 이화윤, 피아니스트 폴 살레니·임주희 등이 참여한다. 이 밖에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

제’에서도 비올리니스트 신경식,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K-클래식의 캐거에도 불구하고 소수 솔리스트의 성공에 가려져 음악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처럼 국제 콩쿠르를 거치지 않고도 음악가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고, 유명 콩쿠르 우승자가 모두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 음악의 목적이 개성 있는 음악가를 키우기보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따느냐를 따지는 것처럼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것으로 변질될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음악평론가는 “천재라도 음악성이 깊어 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대 연주자와 20대, 30대 연주자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우리 클래식 시장이 지나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준결선 무대에서 협연 중인 첼리스트 최하영

개 1등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콩쿠르 강국이 클래식 강국이라는 시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탁월한 솔리스트는 배출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각 악단 특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수도권 대표적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KBS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만 해도 단원들과 지휘자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이끌어갈 악장자리가 각각 6, 7년씩 비어 있다. 각 악단은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악장 선임에 결정적인 상임 지휘자(음악감독)의 임기가 해외에 비해 짧은 3~5년에 불과해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주요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중 외국인이 다수라는 점은 장기적으로는 K-클래식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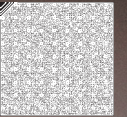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 교향악단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해외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외부 수혈이 필요하나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국내 오케스트라에 애정을 품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오케스트라 경영자·행정가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험 있는 지휘자보다 외국인이 오히려 다루기 쉬워 해외 출신을 선호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인기 종목’에만 치우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콩쿠르에서 우수한 몇몇 ‘스타’들만 주목받는 K-클래식이 아닌 균형 있는 음악 시장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글 하중훈 《서울신문》 기자

사진 제공 밴 클라이번 재단,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어느 이랑 개론: 이랑의 사랑

↓
아티스트 이랑



—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 음악상을 받은 가수가 트로피를 즉석에서 경매에 부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가 트로피를 판 이유는 간단했다. 돈이 필요한데 상금이 없으니까. 그는 무대 위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다음의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수입이 42만 원인데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월세를 내야 하는데 상금이 없으니 이 트로피를 팔아야겠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집 타이틀곡 ‘신의 놀이’로 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받은 아티스트 ‘이랑’의 일화다. 당시 트로피는 50만 원에 팔렸고 트로피를 산 사람은 이랑과 사전에 공모한 제작자로 밝혀졌다.



질문하는 사람

이랑의 이른바 ‘트로피 퍼포먼스’를 두고 당시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펼쳤는데 이랑이 의도했던 바는 어찌면 이것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한 번쯤 돈과 명예의 관계, 그리고 예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트로피가 정말 팔렸는지, 누구에게 팔렸는지, 얼마에 팔렸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랑은 언제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속된 말로, 왜 뜻이 있는 곳에는 돈이 없는가. 한국대중음악상이라는 권위 있는 상을 받을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면 잘 먹고 잘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계속 가난한가.

이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 안 되는 예술’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불편한데 모두가 다 참고
있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었다. 그에게는 ‘돈이 되는 예술’도 그 못지않게 이상했다. 예술을 하면서 노상 돈에 대해 말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말했다. “그럼 돈이 안 되는 것을 하지 말고 돈이 되는 것을 하라”고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돈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대중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일투성이인데, 오늘도 나와 내 친구들은 가난하고 노동으로 고되고 병들어 아픈데, 어떻게 돈이 되는 것을 할 수 있지? 그에게 그건 돈이 안 되는 예술보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상한 일에 대한 이랑의 질문은 노래를 넘어 그가 쓰고 그리는 글과 그림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왜 원고료는 10년 동안 오르지 않고 15만 원인지, 내 이름의 인터뷰 지면을 만들기 위한 자리의 모든 사람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왜 나만 무일푼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등. 사실 그것은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고 ‘다 그런 거니까’ 하고 씩씩히 웃어넘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상한 일에 대해 그렇게 꼬박꼬박 이상하다고 말하면 너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으냐”라고 말이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불편한데 모두가 다 참고 있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고료가 15만 원인데 누가 만족스럽겠어요. 예술을 글자 수로 세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사는 건 그에게 너무 괴롭고 억울한 일이었다.

이야기하는 사람

이쯤 되면 궁금할 것이다. 이랑은 누구인가. 이랑의 책《좋아서 하는 일에도 돈은 필요합니다》의 316쪽의 표현에 따르면

이랑은 영상 작가이면서 소설가이면서 에세이스트이면서 페미니스트이면서 선생님이면서 고양이 준이치의 엄마이면서 만화가이면서 음악가다. 덧붙여 어린 시절 화가를 꿈꿨으나 입시 미술에 환멸을 느꼈고, 그즈음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 꽃혀 그가 교수로 있는 한예종의 영화과에 입학했으나, 재미로 만들어둔 25곡의 노래로 첫 앨범을 만들어 가수로 데뷔했다는 배경을 알면 이랑이라는 사람을 아는 데 도움이 될까?

이쯤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랑은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전부 다 하고 있으니 대단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분히 희망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랑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좋아서 하는 일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일인데 뭐가 좋아요, 힘들고 고되죠. 제가 좋아하는 건 집에서 고양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거 하는 거죠. 그런 게 좋은 거죠.(웃음)” 그렇다.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도 좋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일로는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서사에는 앞서 그가 줄곧 이상하다고 생각해 온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고독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소외의 감정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을 리 없다. 의뢰받은 글을 쓰며 글자 수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신날 리 없다. 반복되는 인풋과 아웃풋의 구조 속에서 하루하루 괴로울 뿐이다. “이거 어때,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자니 따라오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어마어마하다.

좋아서가 아니라 먹고살려고 하는 일, 혼자 즐기는 취미가 아니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 쓴다는 느낌 없이 스스로 굴려야 하는 일을 위해 이랑은 매일 ‘기록’한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메모를 하고 길 가는 중에도 녹음을 한다.



이야기가 떠오르면, 멜로디가 들려오면,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면, 그때그때 미루지 않고 기록한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엄청 피곤하면서, 또한 귀찮으면서, 이랑은 쉬지 않고 주변의 사람과 세상을 관찰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자신의 언어로 들려주고 말해 준다. 이상하다고. 이랑은 왜 이렇게 이상한 일에 열심이고 진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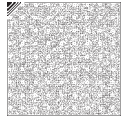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

이랑의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 듣는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서

일인데 뭐가 좋아요, 힘들고 고되죠.
 제가 좋아하는 건 집에서 고양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거 하는 거죠.
 그런 게 좋은 거죠.

“위로받는다”고 말한다. 최근 발표한 3집 앨범 〈늑대가 나타났다〉 또한 개인과 시대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정서로 가득하다. 또한 이랑의 글을 읽고 그림을 보면 삶의 구체적 수치와 지표에 매우 놀란다. 자신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일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드 주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슬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지 그는 꼼꼼하게 고백하고 공유한다. 마치 제품 상세 페이지처럼 말이다.

이러한 고백과 교감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다. 어린 시절, 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만든 노래가, 친구들에게 비밀스럽게 들려줬던 노래가 있었기에 지금의 위로가 있다고 이랑은 말한다. ‘나’로 시작한 주어는 세상의 무수히 많은 ‘이상한 일’을 거치면서 어느덧 ‘너’와 ‘우리’로 바뀌었다. 자기 자신을 향했던 위로는 어느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그가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주제는 아무래도 이번 생에서는 ‘돈이 되는 예술’이 되기에는 요



원해 보인다. 그래도 그는 지치지 않고 노래하고 말하고 ‘일’ 한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의 어떤 ‘승고함’ 때문에. 승고함. 그것은 그가 움직이고 일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의 유일한 동력일지도 모르겠다.

이랑은 ‘신의 놀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20개 정도 직업군의 노동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이 일하는 몸짓에 착안한 안무를 손수 지은 뒤 촬영했다. 노동자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문득 그가 생각하는 사랑의 형태에 대해 물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 글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랄까요. 이 거칠고 험한 사회에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되고 슬픈 일이에요.” 밀도 끝도 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점철된 기존의 사랑의 문법과는 다른 ‘이랑의 사랑’이다.

오늘도 이랑은 분노하고 슬퍼하며, 결국 사랑한다. 먹고살기는 여전히 피곤하고 예술을 돈으로 매기는 일도 여전히 어렵다. 돈이 되는 예술을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괴롭다. 그러기에 세상은 분노할 일과 화나는 일로 매일매일 가득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랑의 하고 싶은 이야기 또한 멈추지 않는다. 이 에너지로 이랑은 올해 2030세대 여성 4명의 죽음을 다양한 시선에서 다룬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 계획이다. 타인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의 주어는 ‘나’가 아닌 ‘너’와 ‘우리’다. 그의 노랫말처럼, 이랑은 ‘영화를 통해 신의 놀이를 하고 있다.’

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이랑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을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아 있는 동안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인생이라면 좀 재미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벽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슬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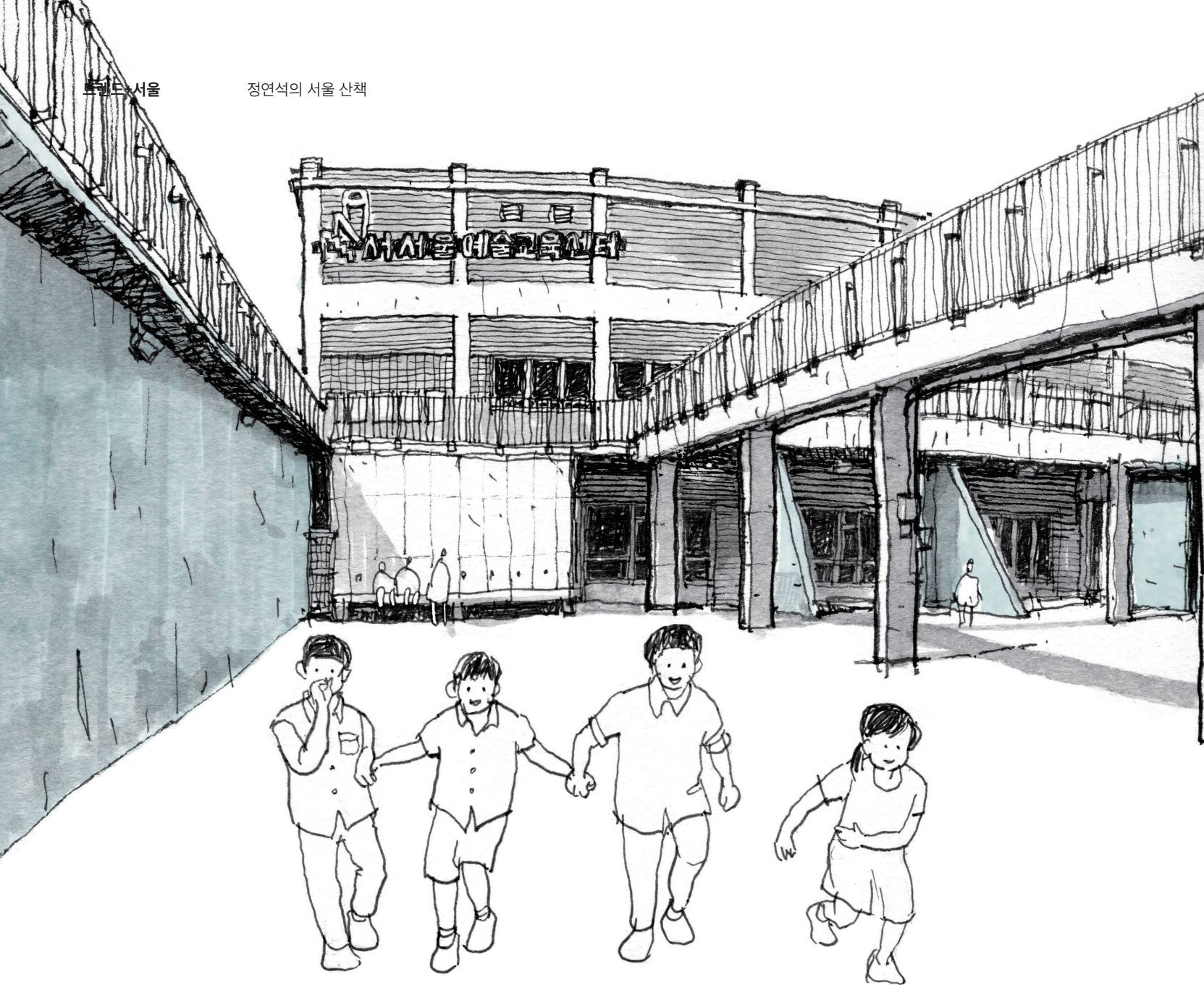
장면도 없겠죠.(웃음)” 장마를 통과하면서 대중없이 비를 만나는 요즘, 우산이 없어 하염없이 비를 맞아야 할 때 가끔은 우산이 필요하기보다 그냥 이 비를 좀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랑은 어쩌면 그런 내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글 장보영_객원 기자 | 사진 제공 유어썸머 | 사진 서울문화재단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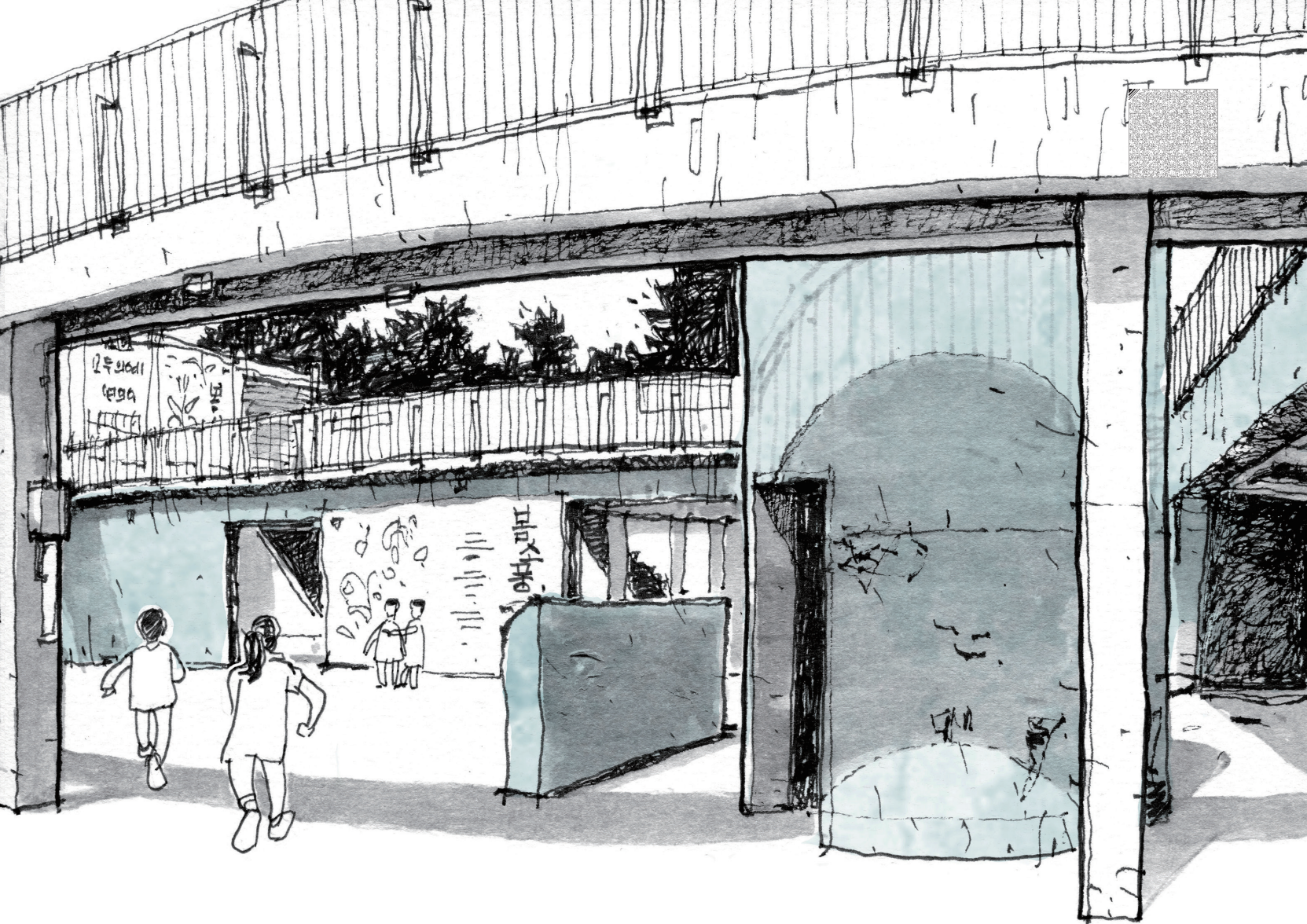
이 거칠고 험한 사회에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되고 슬픈 일이에요.





버려진 정수장의 추억을 찾아가는 길, 신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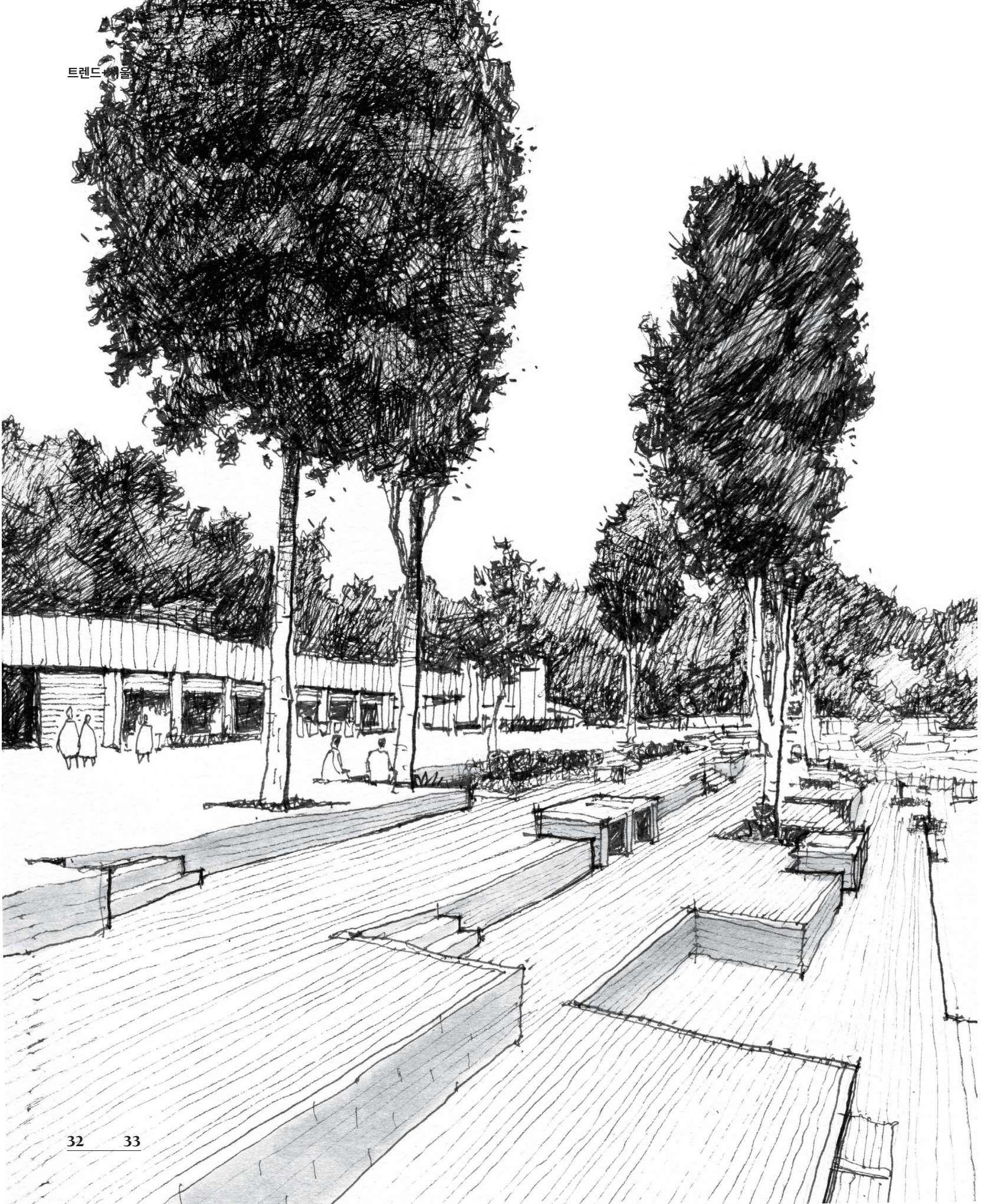
서울미술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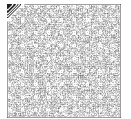


—— 2010년대 초반에 2년간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근처에서 살았다. 그때 주말이면 산책 삼아 자주 가던 곳이 있었다. 예전 정수장이었던 곳을 고쳐 만든 동네 근린공원이었는데 오래된 정수장의 구조물을 활용한 공원 시설 중앙의 넓은 호수가 좋아서 자주 찾았다. 지금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로 바뀐 가압장 시설이 공원의 진입부에 있다. 그곳을 보면서 늘 궁금했다. 그때의 가압장 시설은 가동을 멈춰 비어 있는 공간이었기에 왠지 이곳을 잘 활용하면 멋진 문화공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달 취재 장소가 서서울예술교육센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치 헤어진 친구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괜히 반가웠다.

재생 공간에서 탄생하는 문화와 예술

2016년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국내 최초 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 구현을 위해 차별화된 예술놀이 콘텐츠를 연구·개발해 서울 서남권 학교와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에 총 3개의 교육 스튜디오, 예술놀이 연구실, 전시·체험 공간인 미디어랩 등이 있다. 김포가압장은 1979년 신축돼 2003년까지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원래 물이 가득 담겨 있던 지하 1층의 외부 수조 공간은





교육이나 행사가 없을 때 동네 어린이의 훌륭한 놀이터가 된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의 예술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실행하는 예술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나온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서서울호수공원으로 향한다. 7월의 열기가 뜨거운 평일 낮이어서 그런지 공원은 한적했다.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서울호수공원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공원이자 인근 주민의 소중한 산책 공간이다. 이날도 산책 나온 동네 주민들이 시원한 호수와 주변의 나무 그늘이 짙은 산책로를 따라 느긋한 평일 오전을 보내고 있었다. 서서울호수공원 주변 능골산의 숲과 낮은 등산로를 넘어가면 부천시다.

서서울호수공원은 2009년 개장했다. 이곳은 선유도공원처럼 용도 폐기된 옛 정수장을 고쳐 만든 공원이다. 1959년 김포정수장으로 문을 연 후 2003년 가동을 멈출 때까지 강서 지역의 수도물 공급을 담당해 온 신월정수장을 ‘물’과 ‘재생’을 테마로 한 근사한 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수도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소였던 정수장의 흔적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만든 것이다. 중앙호수도 당시 정수장에 있던 모습 그대로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생명이 공존하는 곳

서서울호수공원의 명물은 축구장 2.5배 넓이의 중앙호수에 설치된 41개의 소리분수다. 김포공항과 가까운 신월동은 늘 비행기 소음으로 시끄럽지만 이 공원에서만큼은 그 비행기의 소음을 기다리게 된다. 바로 이 소리분수 때문이다. 공원 상공을 지나가는 80db 이상의 비행기 소리를 감지하면 분수가 작동한다. 비행기가 상공을 지날 때마다 하얀 분수가 시원하게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일부러 찾아가 비행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곤 했다.

서서울호수공원에는 옛 공원 시설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한 시설물도 눈에 띈다. 공원의 벤치와 자전거 보관대 등에 사용된 붉게

녹슨 송수관은 이곳이 과거 정수장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 옛 정수장의 흔적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중앙호수 옆의 몬드리안정원은 옛 정수장의 침전조를 부분적으로 남겨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도록 한다. 옛 침전조의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새로운 시설물과 어우러져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멋진 공원이 완성됐다.

과거 정수장의 흔적은 콘크리트 기둥을 이용해 파고라 구조물을 만든 옥상정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군데군데 부서져 낡은 콘크리트 기둥, 노출된 철근 주변에 자라는 푸른 담쟁이덩굴과 등나무는 이 오래되고 녹슨 구조물에 새로운 생명과 시간을 부여한다. 콘크리트는 생명이 없지만 이 푸른 식물들은 이 오래된 구조물을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보이게 만든다.

옥상정원에서 다시 몬드리안정원의 상부를 가로질러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하늘길에 올라서면 몬드리안정원과 서서울호수공원이 더 잘 보인다. 이 하늘길은 공원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과거의 흔적을 멀리서 조망하게 한다. 하늘길에서 내려와 호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문화테크 광장으로 향한다. 예전 주말마다 서서울호수공원을 찾았을 때 산책은 늘 이 테크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무리하곤 했다. 이곳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당시에는 그렇게 소중한 수 없었다. 회사에서 받은 일주일간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가끔 미루나무 그늘에 앉아 김밥이나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기도 했는데 여기서 먹는 김밥은 당연히 더 맛있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예전만큼 자주 이곳을 찾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이 공원을 찾는다.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의외로 사람들이 이곳을 잘 모른다는 사실에 가끔 놀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이곳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몰래 숨겨두고 나만 조용히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나에게 이곳은 버려진 정수장의 시간과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시간이 합쳐진 특별한 추억의 장소다.

글 그림 정연석, 《서울을 걷다》 저자



동병상련의 위로가 필요할 때

뮤지컬 <포미니츠>와 <유진과 유진>

마음에 난 상처는 나무의 웅이와 같다. 완전히 아물어 상처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덧나게 방치하는 것, 혹은 상처가 난 자리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정도가 주어진 선택지다. 어느 쪽이나 쓰라리긴 마찬가지겠지만 후자는 동병상련, 즉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이해를 통해 쉬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인생의 쓰라림을 겪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가자며 관객에게 손 내미는 뮤지컬 두 편을 소개한다.



1, 2 뮤지컬 <포미니츠>

그럼에도 너의 문을 열어라

<포미니츠> | 6.21~8.14 | 국립정동극장

60여 년간 교도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온 '크뤼거'는 10대 소녀 '제니'를 만난다. 제니는 피아노에 천재적 재능을 지녔으나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다. 크뤼거는 제니에게 피아노 수업을 들을 것을 제안하지만 제니는 세상과 담을 쌓고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킬 뿐이다. 그러나 제니는 피아노를 쉽게 지나칠 수 없고 크뤼거는 제니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둘은 피아노를 매개로 서서히 가까워지고 제니는 크뤼거의 도움으로 청소년 콩쿠르에 출전하게 된다. 하지만 제니를 미워하는 재소자들과 제니의 재능을 질투하는 교도관 '위체', 그리고 제니에게 상처를 준 양아버지까지 이들의 간섭 때문에 콩쿠르 결선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다.

제니와 크뤼거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다. 인생의 풍파 속에 이제 막 던져진 제니는 물론이고 전쟁 이후 60년을 더 살아온 크뤼거 역시 그 상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두 인물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음악을 통해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삶의 방향을 재정립한다. 극 중 크뤼거는 제니에게 “그러니, 그럼에도 너의 문을 열어라”라고 외친다. 비록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 있더라도 먼저 떠나간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인생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는 대목이다. 요즘 시대의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는 뻔함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하지만 크뤼거가 제니에게 건네는 조언은 관객에게 울림을 준다. 크뤼거는 아무나가 아니라 제니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뮤지컬 <포미니츠>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 크라우스 감독의 영화 <포미니츠>를 원작으로 한다. 영화는 여성 재소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거트루드 크뤼거(1917~2004)라는 실존 인물에게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뮤지컬은 지난해 국내에서 초연해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재연으로 돌아온 올해 무대에서는 크뤼거 역에 이소정과 이봉련이, 제니 역에 한재아와 홍서영이 열연하며 세대를 초월한 교감과 연대를 그린다. 무대 중앙에서 제니의 내면을 표현하는 피아니스트 김경민과 제니의 혼연일체된 연주가 대미를 장식한다.



뮤지컬 <유진과 유진>

네가 옆에 있어서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어

<유진과 유진> | 6.18~8.28 | 대학로 자유극장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범생으로 조용히 살아온 '작은 유진'과 공부에는 관심 없으며 털털하고 쾌활한 '큰 유진'. 두 유진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반에 배정받게 된다. 큰 유진은 같은 유치원에 다닌 작은 유진이 '그 일'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다며 반갑게 인사하지만 작은 유진은 큰 유진도, 그들이 함께 다닌 유치원도 모른다고 답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유진은 원치 않는 일탈을 하게 되고, 자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잊고 지낸 과거의 파편이 조금씩 생각난다. 작은 유진은 큰 유진에게 유치원 때의 일에 대해 묻고 두 친구는 서로의 편이 돼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

뮤지컬 <유진과 유진>은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두 친구가 과거를 함께 돌아보는 구조의 극이다. 잘못된 것 하나 없는 아이들이지만 과거의 일은 계속해서 유진과 유진을 괴롭힌다. 악몽을 꾸는 건 다반사고 가족과

남자친구에게도 2차 가해를 당한다. 이때 그들에게 힘이 돼주는 건 같은 고통을 겪고 옆에 있어주는 서로뿐이다. "네가 옆에 있어서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어" "그때의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건 지금의 우리뿐"이라며 유진과 유진은 서로를 토닥인다.

<유진과 유진>은 이금이 작가가 쓴 동명의 청소년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아동 성폭력을 소재로 해 관람 전 우려가 들 법도 하지만 극은 윤리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다만 따뜻하고 섬세하게 유진과 유진에게 위로를 건넨다. 가해자에게 한 치의 서사도 부여하지 않고 무대는 두 유진의 세계, 그리고 두 유진을 맡은 두 배우의 에너지로 가득 찬다. '상사화' '홍연'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은 <유진과 유진>을 통해 처음으로 뮤지컬 작곡을 맡았다. 루프 스테이션 활용과 악기 연주자들의 익살스러운 코러스 연기까지, 독특하고 감각적인 음악 구성도 <유진과 유진>의 매력에 큰 몫을 더한다.

글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 사진 제공 국립정동극장, 낭만바리케이트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는 우리의 초상

전시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과 <에바 알머슨, Andando>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역사의 뿌리를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지금의 나, 그리고 먼 미래 우리의 얼굴을 본다. 시간은 세상 만물을 변화시키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에서 '우리'로 여행하면서 진화해 왔다. 지나는 시간은 문신처럼 남아 '지금,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고 미래 인류를 위한 자양분이 된다. 우리가 무엇이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오래된 미래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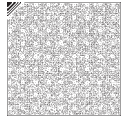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 7.7~9.25 |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특별전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은 피, 땀, 눈물의 결정체다. 환수 문화재 40여 점에는 사라진 시간의 향기와 아픈 역사의 곡절이 묻어 숨는다. 덕혜옹주가 입었던 녹색 당의와 붉은색 스란치마에는 조선 최고의 복식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 있고,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일본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입했다는 고려 나전칠기 모자함(母子盒)의 국화와 넝쿨무늬 문양은 시간의 강을 건너 생생하게 살아났다. 조선 후기 보병들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면피갑은 면 안쪽에 가죽 갑찰을 이어 붙여 만든 갑옷인데, 갑옷 안쪽에 착용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목서가 남아 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이 면피갑을 입었던 조선의 병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이 해 본다. 독일 상트오틸리엔 수도원이 소장하고 있던 면피갑을 2017년 국외소재문화재단이 한국문화재 전수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고, 수도원 측이 갑옷을 기증하면서 우리나라로 반환됐다고 한다. 세종대에 집현전 관리를 지낸 이선제의 분청사기 상감 묘자가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지 반세기 넘어 고향으로 돌아온 사연도 감동적이다. 문화재 자체도 자체지만 유출 과정(도굴, 도난, 강탈 등)과 환수 과정(소장자 설득, 영구 임대, 경매를 통해 구입 등)의 사연이 하나같이 극적이어서 보는 이의 애를 끓게 한다. 조선 시대를 풍미한 문인화가 강세황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정묘한 초상화와 <검재정선화첩> 속 작품 21점을 댕 놓고 바라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의 힘은 위대하고 영원하다. 당대의 삶을 녹여 시간에 봉인한 문화재의 향기를 누리는 체험은 황홀하게 행복했다. 이렇게나 멋진 특별전 전시 관람이 9월 25일까지 무료!



우리가 무엇이 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에바 알머슨, Andando〉 | 5.13~12.4 | 용산전쟁기념관 특별전시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에바 알머슨이 왜 ‘행복을 그리는 화가’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아름다운 색감의 파노라마와 행복한 표정의 그림 속 주인공들을 만나는 일은 만화경을 보는 것처럼 즐겁다. 그림은 그녀가 오감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자신만의 언어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다. 작가는 자기 안에 쌓인 경험과 감정의 지도에 작은 점을 찍어 선으로 연결한 뒤 우리에게 그림이라는 형식의 이야기로 되돌려 준다. 그림과 삶은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그녀의 그림 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변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게 한다. 그녀가 그린 인물들은 심장처럼 뜨겁게 뛰는 사랑을 안고 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주고받는 심장의 박동 같은 사랑이 전시회 전체의 리듬이 된다.

전시장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새 조형물은 어느 날 불현듯 작가에게 찾아온 영감을 상징한다고 한다. 새와 같이 자유로운 영감의 여행을 통해 구현된 에바 알머슨의 세계에는 지나온 과거의 나, 지금 이 순간의 나,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 모를 미래의 내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린 자가격리자들의 초상화 100여 점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초상이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말한다. “바깥의 어둠은 우리 것이 아니지만 내면의 꽃과 빛은 우리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법 같은 세상의 이치다. “우리가 무엇이 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을까요?” 에바 알머슨의 그림들이 귓속말로 그렇게 속삭여왔다.

글 전영석, 《PAPER》 기자 | 사진 제공 국립고궁박물관, 디커뮤니케이션



1 전시 〈나라밖 문화재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국새 준영지보

2 문인석

3 덕혜옹주 당의

4 에바 알머슨 <Separate the grain>(2022)

5 〈에바 알머슨, Andando〉 전시장 전경

8월
한여름 대구의 날
햇빛이 전속력으로
달려 서울 북악산
넘어 비밀의 숲
바다선 계곡 당도 當到
멈칫멈칫
깊은 골짜기까지는
폭엽의 열정도
미치지 못해
뒤꿈치 들어
여름 산 바나보는
서울의 판화



백사실 계곡: 서울 북악산 북사면에 있는 계곡. 물이 맑고 보호종인 오색딱다구리, 도롱뇽이 서식하는 청정 지역. 수려한 경관 덕에 1800년대 벌써 유적인 백석동천 등이 자리하고 있다.

글 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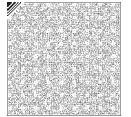
※ 서울 창1의 본문 사진은 박정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역사^{驛舍}에서 배우는 동네의 역사^{歷史}

서울 지하철과 풍경들



너무 익숙해 쉽게 눈길을 주지 못했던 서울시민의 '매일의 공간' 지하철역. 하지만 그곳이 역사^{驛舍}가 위치한 동네의 역사^{歷史}를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될 때 정성스럽게 붙여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지하철 타일 벽화로 새겨진 20세기 서울의 물상들을 탐험해 보자.



동대문역

동대문역 정거장의 디자인 주제는 '과거와 미래'다. 이는 도성의 동쪽 성문을 열고 닫는 동대문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는 빛이 쏟아져 내리는 열린 동대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충정로역

2호선 충정로역 출구 주변에는 지금은 사라진 '서대문'의 풍경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있다. 이외에도 담장의 기와를 표현한 타일 벽화가 있다. '충정로'라는 이름은 순국선열의 대표 인물인 민충정공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붙인 것이며, 순국열사 중에서도 맨 처음의 인물이어서 이 인물을 택했다고 한다. 충정로는 길의 이름이자 1946년 10월 1일부터 부르게 된 법정동의 이름이기도 하다.

압구정역

압구정은 조선 초기의 권신인 한명회가 세상 일을 잊기 위해 강가의 갈매기를 벗 삼아 지내겠다며 지은 정자의 이름이다. 이곳은 돛단배가 떠 있는 한강과 강북의 원근 풍경, 그리고 닻나무가 무성한 저자도 등이 펼쳐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전경이었다고 전해진다. 한쪽 승강장에는 압구정, 반대편 승강장에는 갈매기가 나는 하늘이 펼쳐져 있다.

안국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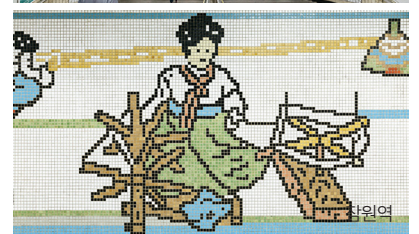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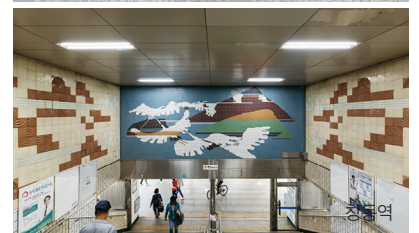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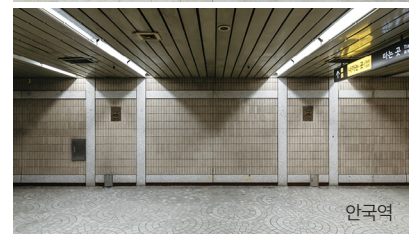
안국역 정거장의 디자인 주제는 '안국동의 옛 모습'이다. 안국역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 가옥 목기둥-보 구조에서 차용한 재료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안국동이라는 지명은 조선 초기부터 이 일대를 '안국방'으로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곳은 북촌, 또는 웃대라고 불리던 서울 중의 서울이었다.

창동역

4호선이 1호선과 교차 환승하는 지점에 설치된 창동역의 '들녘'은 개발되기 전 창동의 광활한 들판의 모습을 담았다. 창동이라는 지명은 본래 이 지역 일대가 넓은 들판으로서 조선 시대 임금에게 곡식을 진상하던 곡물창고가 있었던 데에서 붙은 이름이다.

잠원역

잠원역 정거장의 디자인 주제는 '견직도와 누에고치'다. 잠원동은 조선 초에 국립 양잠소를 이곳에 두었다는 데에서 유래하는 지명이다. 원래 이 지역은 시흥동 신동면 잠실리였는데,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될 때 강동구 잠실동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잠원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쪽 승강장에서 '견직도', 반대편 승강장에서 거대한 '누에고치' 타일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



글 이소영_인스타그램 @metroofseoul 운영자: 20세기 서울의 지하 공간과 이미지를 탐색한다. | 사진 석준기
※ 격월로 연재되는 지하 미감 어드벤처는 <동물들> <서울의 옛 풍경> <다이너믹 코리아> <무늬> <사라진 벽화들> 순서로 서울 지하철 벽에 새겨진 모양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족의 대안, 감정 공동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브로커>(2022)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송강호(상현), 강동원(동수),
배두나(수진), 이지은(소영),
이주영(이형사)



가족을 기억해 본다. 그 기억의 감촉이 행복한 지 불행인지, 감동인지 아픔인지 분명하지 않다. 불투명 유리 뒤에서 아른거리는 그림자처럼 형체는 있지만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데 회한하게도 억울한 기억과 미안한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뭉툭해지지 않는다. 가족을 생각해 보니 그렇다. 미련인지 미련함 때문인지 끊어지지 않는 기묘한 감정이 끝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꼬리 같아서 문을 닫을 수 없다.

• 혈육보다는 양육

빛에 허덕이는 세탁소 주인 상현(송강호)과 보육원 출신의 동수(강동원)는 소영(이지은)이 교회의 베이비 박스 앞에 버린 아기를 몰래 훔쳐 온다. 아기가 필요한 부모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길 작정이었는데 갑자기 소영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들의 계획은 엉망이 된다. 여기에 형사 수진(배두나)과 후배 형사(이주영)가 끼어들면서 아기를 팔려는 일정은 여행이 돼버린다. 히로카즈 감독은 진짜 가족이란 ‘낳다’에 방점이 찍힌 혈육이 아니라 ‘기르다’에 중심을 잡은 양육으로 결정된다고 말해 왔다. 그래서 <어느 가족>에서는 아이를 버리는 진짜 부모보다는 좀도둑질을 시키지만 옆에 끼고 돌봐주는 양부모가 차라리 낫지 않은가 하

는 도발적 질문을 던진다. 가족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낳기 전에 죽이는 것보다, 낳은 후에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브로커>의 화두는 조금 더 논쟁적이다.

전작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의 꾀꾀한 성장 이야기였다면 <브로커>는 감정 공동체로서의 대안 가족을 만들어 모두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는 이야기로 확장된다. 각자 불행한 가정에서 제각각 부러진 나뭇가지거나 빠죽 튀어나온 잔가지 같았던 사람들이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울타리가 돼보려 한다. 하지만 공감할 만한 사연을 가진 인물이 없어 누구에게도 딱히 마음이 쏠리지 않는 점은 아쉽다. 게다가 인물들 사이에 서로를 굳이 품어야 할 만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야기에 솔깃하게 되는 순간이 부족하다.

그들 없는 이야기

대안 가족으로서의 이야기는 사실 <어느 가족>에서 정점을 찍었다. ‘관계’가 가족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의 농도와 맛이 무척 진한 이야기였다. 그런 농도를 기대하고 보자면 <브로커>는 조금 미미하다. 일본 덮밥 장인이 한국 산 재료로 현지 맛을 내려는데 결국 와사비 대신 연겨자를 넣은 것 같다. 히로카즈 감독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삶과 죽음 같은 갈등 사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 각자의 사정

이 보이지 않는, 너무 많은 주인공을 아우르다 보니 각각의 인물에 집착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딱 적당한 거리에서 관찰하던 카메라의 시점이 취향에 따라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배우 이지은에게 가수 아이유를 지울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도 굳이 자장가를 부르는 장면을 넣은 것처럼 차가워야 할 이야기와 따뜻해야 할 정서가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감정의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미지근해진다. 사실 이전까지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냉기가 서린 늦가을에 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늘에서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은 부시지만 몸은 서늘하다. 그래서 그의 영화를 보고 있자면 심장은 차가운데 마음은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서적 아이러니에 빠진다. 그런데 <브로커>는 줄곧 뽀뽀한 직사광선 아래 있어 도무지 숨을 곳이 없다. 히로카즈 감독의 오랜 팬들은 이 영화의 미지근한 온도가 아쉽다고 하고, 그의 작품을 처음 본 관객은 공감 가지 않는 뭉툭한 정서를 아쉬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 공동체가 가족의 대안이라는 히로카즈의 일관된 어조에는 역시 일관되게 공감이 간다.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 박도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뻐다》 등이 있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암성^{暗聲}과 아귀성

박봉술과 한승호

우리는 조선성악연구회를 알아야 한다. 그곳을 알아야 민속음악의 뿌리를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59번지. 조선성악연구회 한옥은 지금도 남아 있다. 국악로의 큰길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현재 고깃집으로 영업한다. 남아 있는 조선성악연구회 회관을 복원하지 못하면 이곳을 국악로라고 부르는 것에 자괴감이 들 것이다.

꼬리를 달지 않은 소리

이곳이 조선성악연구회 회관이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한승호 명창이다. 한승호 명창은 조선성악연구회 회관이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강조했다. 조선성악연구회에 일찍이 10대 소년의 나이에 들어가 대명창에게 학습한 명창으로는 박봉술(1922~1989)과 한승호(1924~2010)를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송만갑 명창 문하에서 수학했다. 일찍이 돌아가신 형님의 뒤를 이어 박봉술은 소리를 시작했다. 그는 송만갑 명창에게 소리를 배운 기간을 ‘소리의 때를 벗긴 시절’이라고 말한다. 그곳에서 ‘소리에 꼬리를 달지 않고’ 깨끗하고 거뜬하게 소리를 밀고 가는 힘을 배웠다.

1938년 4월 28일, ‘심청전 전창대회^{心淸大會}’가 부민관(현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판소리 <심청가>를 여러 명창이 나눠 불렀다. 맨 처음 무대에 올라와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사람은 소년 명창 한승호다. 1939년 5월 13일, ‘조선소리콩쿨’이 역시 부민관에서 열

렸다. 요즘 말로 하면 ‘차세대 명창전’이다. 앞으로 조선악^{朝鮮樂}을 책임질 신진의 무대였다. 박봉술이 <춘향가>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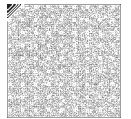
두 사람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별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열사가>를 만든 박동실(1897~1968)의 제자답게 한승호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연관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아쉽게도 당시의 전통예술인은 친일과 관련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한승호는 징용에 가기 싫어 숨어 다녔고 박봉술은 낙향해 장가를 들었다.

1960년대에도 두 사람은 주목받지 못했다. 두 사람의 소리 스타일이 대중에게 가닿지 못했다. 대중은 소리에 꼬리를 달아가면서 기교를 부리는 화려한 소리를 좋아했다. 당시는 국극과 창극의 전성 시대였다. 대중은 연극적인 소리를 좋아했는데 두 사람의 소리는 성음보다 발음을 중시하는 소리였고, 대사는 노래든 전달력에 중점을 뒀다. 두 명창이 유독 창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1971년 7월 5일, ‘제1회 판소리유파발표회’가 명동 국립극장(현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렸다. 당대 최고 명창이 출연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고제^{高濟}의 질박한 소리를 다시 알아주기 시작한다. 박봉술과 한승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은 완창 판소리를 하면서 공력을 인정받는다.

‘들리지 않는 고음’과 ‘각구벽질’

1974년 4월 2일, ‘제1회 한승호 판소리 독창회’가 열렸다. 한승호는 특히 <심청가>와 <적벽가>에 집중했다. 1976년이 한승호의



해라면, 1977년은 박봉술의 해였다. 1976년 3월 23일, 한승호는 <심청가>를 불렀고, 1976년 7월 2일과 9일, 2주에 나눠 <적벽가>를 불렀다. 1977년 1월 21일, 박봉술은 <수궁가>를 시작으로 11월 25일 <심청가>를 불렀다. 박봉술의 완창 무대에는 옛 유성기 음반과 조선성악연구회의 소리를 알고 있는 귀명창이 운집했다.

두 사람의 소리는 매우 달랐으나 사람들 모두 두 명창의 소리를 사랑했다. 박봉술은 꼭 잠겨 있는 듯한 탁한 성음이라 처음에는 듣기에 거슬릴지 모르나 박봉술 소리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이처럼 구수한 소리가 없다. 박봉술은 고음이 잘 나지 않았으나 귀명창들은 '들리지 않는 고음'을 들었다.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듯하지만 어떤 때는 가늘게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다. 암성暗聲이라고 하는 가성歌聲인데, 이 또한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야기기할 때 거론해야 한다. 박봉술 명창이 이렇게 상청에 이르게 되면 청중은 더욱더 신명이 났다.

한승호는 늘 짹짹한 소리를 냈다. 한승호의 소리를 '아귀성'이라 한다. 목청을 좌우로 젖혀가면서 힘차게 내는 소리를 말한다. 한승호 소리 특유의 매력이었다. 또한 '각구녁질'이라고 하는데 여러 구멍(구녁)을 모두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판소리의 여러 조를 두루 넘나드는 것을 말한다. 우조-평계면조-우조-평조-단계면조-진계면조-우조 등 다양한 조성調性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조에 맞는 음색을 제대로 구색하는 것을 말한다.

타계 시기는 다르나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두 사람은 모두 서울 성북구에서 말년을 보냈다. 1989년 12월 11일, 박봉술 명창은 서울 성북구 장위2동 225의 117번지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2010년 1월 28일, 한승호 명창은 생의 마지막 시절을 성북구 정릉2동 다세대주택에서 지냈다. 두 사람에게에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평생 수완이란 것을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삶에는 오직 판소리의 성음만이 존재했다.

글 윤종강_국악 평론가 | 사진 제공 윤종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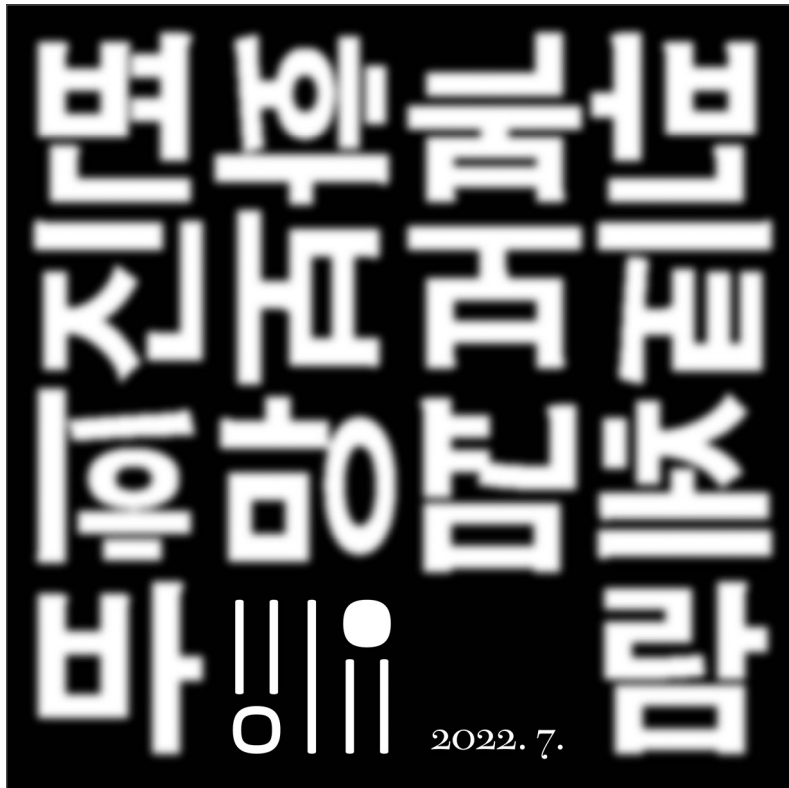


1 박봉술

2 한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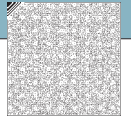
!!!

소박하고 사소한 시작



웹진 [비유] 55호 포스터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일은 더더욱 없었으면 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도, 눈치가 빠른 편도 아닌 탓에 이런저런 곤란을 겪어왔고 그래서 혼자 품게 된 생각이다. 매사 상황을 차분하게 파악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런 의향을 성품이 따라주지 못하니 모든 관계가 피로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의 불안을 달래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책에 빠지는 것이다. 쉽게 추측하기도 어렵고 선불리 공감해서도 안 될 것 같은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그렇게 새롭게 들여다보게 된 세계를 통해 나의 가치관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 남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몰라 스스로 의심하거나 여과 없이 툭 뱉어버린 말이 관계의 독이 돼버리는 일을 피하려면 꾸준히 배워서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



애초에 지구가 뚫어지지 않았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었다잖아

뚫어진 게 정상이고 반듯한 게 비정상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바람이 저렇게 불어 나무를 뚫어지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박은경 <뚫어진 눈썹> 중

박은경의 동시는 외모에 대한 어린 ‘나’의 관심에서 시작해 그 나이의 화자가 성장기에 느낄 법한 반항심에 관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옮겨간다. 작품 속 어린 화자는 왠지 뚫어지게 행동하고 싶은 사춘기의 심정을 비정상적인 무엇으로 비난하는 시선에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자전하는 지구와 바람으로 인해 기울어 있는 나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정상’이라 규정하는 세계를 지탱하는 어떤 기울어진 상태가 존재함을, 그러한 비뚤어짐 덕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허다한지를 이야기한다. 이 발견은 곧 ‘나’ 자신의 뚫어진 외모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얼핏 소박해 보이는 저 자기 긍정이 야말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윤리적 태도를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만만했던 소영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죄송해요’, ‘미안해’를 입에 달고 다녀야 했다. 휠체어에 견주면 다니기 편하다는 유아차형 휠체어를 타고 가기에 우리 아파트에서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가는 길은 너무 불편했다. 처음에는 얼마 전 알게 된 지름길로 가려고 했다가 아파트 쪽문을 지나가려면 계단 3개를 올라가야 한다는 걸 알고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평소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 따위를 신경 써본 적이 없었는데 별생각 없이 걷다 보면 도로의 턱 때문에 연수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다.

공진하 <운동화 한 짝> 중

위 작품은 은지와 소영이 은지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자주 발견되는 실내화 한 짝의 주인을 찾아 나서는 데에서 시작한다. ‘김연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실내화에 관한 사연은 이렇다. 실내화의 주인은 은지와 소영과 동갑이면서도 그들처럼 ‘일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다. 연수가 학교버스로 통학해도 30분 넘게 걸리는 특수학교에 입학해야만 하는 사정을 통해, 더 사소하게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야 하는 장면을 통해, 공진하 작가는 비장애인에게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는 ‘불편한’ 세계를 그린다. 그렇게 사소한 ‘운동화 한 짝’을 통해 몸이 불편한 자들의 세계 혹은 비장애인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세계가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건너지가 불가능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심연 너머 타자를 향해 끝없이 말을 걸고 손을 내민다. 그러한 윤리적 태도를 고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진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보이드문 윤리성이 소박한 자기 긍정과 사소한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진실일 것이다.

연극人n

질문을 멈추지 않는 힘을 얻는 애도의 시간

프로젝트그룹 SAVE <방문자들>



연극 <방문자들>(삼일로 창고극장, 2022.5.27~6.5)

불행 앞에서 이유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행위일까. 어느 현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고 묻는 이에게 그가 불행을 겪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고 한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답은 폭력이라는 불행에 대한 재해석의 시작이지만, '왜'라는 질문의 종착지는 될 수 없다. 어느 날은 한 줄의 답변이 다 쓰이기도 전에 또 다른 기억이 일렁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도에,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몸을 sink기도 한다. 때로는 "네 탓이야"라는 답이 두려워 차마 집어 들지 못했던 질문,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질문. 연극 <방문자들>은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수없이 던져온 '왜'라는 질문을 생의 최후까지 놓지 않았던 정유리와, 떠난 그의 질문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을 목격자들의 이야기다.

공간 디자이너 정유리에게 첫 의뢰가 들어온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유리를 스토킹하는 김태준이다. 제작진은 자신이 스토킹



하는 정유리에게 신분을 숨기고 디자인을 의뢰한 김태준 소유의 스튜디오로 관객을 들여보낸다. 맞은편 관객과 마주 보도록 극장 양 측면에 나란히 줄지어 놓인 객석 뒤로 무대 뒷벽과 같은 디자인의 벽이 세워져 있어 관객은 등장인물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초보 디자이너인 유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첫 디자인과 시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내부에 있던 벽을 모두 허물고 화장실조차 벽 없이 번기만 덩그러니 놓도록 리모델링한 디자인에, 인부는 계속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유리를 비난한다.

공연 홍보물의 시놉시스를 읽은 관객이라면 태준이 유리를 감금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공간 디자인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객석 뒤의 벽과 무대 뒷벽 사이의 등·퇴장로가 끝없이 깊을 것만 같은 느낌, 쇠사슬로 고정된 천장의 프레임과 상들리에가 유독 위태로워 보이는 느낌 역시 그런 긴장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태준이 유리의 파티 참석을 위해 보낸 웨딩헬퍼에게서 유리는 드레스를 건네받고 유리의 화장이 마무리될 무렵 정장 차림의 태준이 들어온다. 의도치 않게 태준이 원하는 공간으로 스튜디오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한 유리는 자신의 손으로 디자인한 공간 안에서 주인도 방문자도 되지 못한 채 고립된다. 웨딩헬퍼가 있어도, 유리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들어와도, 시공을 마치고 돌아간 인부에게 전화가 걸려 와도, 유리와 태준 사이의 폭력적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태준이 나타나는 순간 얼어붙은 유리, 태준의 나직한 몇 마디에 미안하다는 말을 익숙하게 뱉는 유리의 모습을 통해 유리를 가둔 벽은 관객에게 그 질감과 두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방문자들은 방음 처리된 둔중한 극장 문을 통해 스튜디오를 드나든다. 태준도, 인부도, 웨딩헬퍼도, 경찰관도, 파티에 초대받은 유리의 친구도 스스럼없이 벌컥 열었던 문을 오직 유리만 열지 못한다. 유리가 열 수 없는 문으로 한때 유리에게도 닿아 있었던 세상의 조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유리는 자신의 힘으로도, 시시각각 연락을 취해 유리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어머니의 힘으로도, 태준의 폭력으로 끊긴 세상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기에 절망한다.

태준의 대사는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패턴을 지극히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유리의 목소리로 들려야 할 유리의 요구를 탈취하는 태준의 모습이 숨이 막히도록 익숙하다.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날 설득하려고 하기 전에, 내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말할 때 한 번만이라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생각해 봤다면 난 당신에게 적어도 좋은 남자로 남았을 거야.” 폭력의 현실적 묘사와 함께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유리의 노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창작진의 고민 역시 곳곳에 드러난다. 태준의 폭력 행위와 유리의 반응은 말초적 자극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에게 필요한 인상을 남기도록 섬세하게 조절돼 있다. 공연은 태준의 폭력에 제압된 유리를 더 긴 시간 보여주면서도, 유리가 드레스를 내던지는 단 한순간의 저항을 결코 잊지 못하게끔 구성돼 있다. 유리의 마지막 모습은 아폴론에게 희생된 다프네를 모티프로 한 사진 허브 린츠의 <회전초를 든 네이트>와 겹치고, 다프네의 신화가 유리를 위한 애도의 공간을 내어준다. 신화가 품은 광활함이 현실의 불안을 잠시 내려둔 채 유리를 애도하도록 한다.

커튼콜이 끝나고 방문자들이 열었던 문을 통과해 극장 밖으로 나가는 관객을 통해 유리를 위한 애도의 공간은 더욱 넓어질지도 모른다. 극 속의 방문자들이 태준의 스튜디오로 발을 들이는 동시에 폭력에 연루되고 유리의 죽음을 발견함으로써 유리가 남긴 질문을 이어받듯, 관객은 극에 쓰이지 않은 방문자들의 변화를 극장 밖에서 그려낼 몫을 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 애도의 시간이자, 폭력의 구조를 허물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글을 맺는다.



(가상)극장을 둘러싼 관객의 경험

온라인과 메타버스에 대한 좌담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 극장에 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극장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게 됐다. 이에 웹진 [춤in]은 관객 입장에서 극장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현재 온라인과 메타버스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상)극장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좌담을 열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다.

김나영 저는 이 메타버스와 온라인 공연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의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정말 많은 이별을 겪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가 사라졌어요. 거기서 우리가 느낀 것은 공허함과 상실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룹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본명 임성훈)이 있어요. 터틀맨의 가족과 팬을 모아 Mnet TV 프로그램에서 공연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한 적이 있는데요. 공연을 보던 분들이 정말 평평 울더라고요. 메타버스와 온라인 공연은 그런 공허함과 상실감을 치유할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추억을 회상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석 저는 낯것의 현장 공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와 온라인 공연은 어느 정도 아쉬움이 있어요.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은 분명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두고 그에 대한 작가의 생각, 그것을 유통하는 자본과 기술의 문제를 분리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기술에 의해 작품의 예술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후 기술이 발전해 100년 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약을 모두 극복할 수단이 생긴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술은 결국 어떤 사람의 표현물이잖아요. 기술이 예술의 표현성을 새롭게 증폭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진 어떤 것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더 유효해질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유효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예술, 특히 공연 분야 예술은 이것을 만드는 사람도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도 불편을 감수해야 그 가치가 높아지지 않나 싶어요. 저는 공연이란 숲을 보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그 숲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카메라 앵글을 잘 잡아 찍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시각에 대한 오해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서울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진, 김나영, 김다엘, 서민석

무용센터가 해도 좋고요, 어떤 기관 내지 관계자들이 공연을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유효한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민석 공연이라는 것이 결국 향유하는 관객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잖아요. MZ세대는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이 세대가 10년, 20년 후에 성장하고 나면 그들이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감상하는 순수예술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고 그것을 대체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선택지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디지털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겠죠. 제가 본 메타버스 공연은 무대를 가상공간에 만들었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 영상 공연을 관람하는 정도였어요. 제 생각에 이것이 메타버스는 아닌 듯하거든요. 아직은 매우 초보적 단계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이렇게 상상해 나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모더레이터 김다엘
좌담 참여자 김나영(논술교사),
박진(소설가), 서민석(경영 컨설턴트)

글 조형빈_웹진 [춤in] 편집위원 | 사진 제공 이생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

2022 AUGUST

SFAC 문화예술공간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예술청 / 대학로센터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 대학로극장 쿼드
- 기타 문화행사

※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은 지원사업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문화 예술 행사를 폭넓게 홍보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신청 및 더 많은 정보 확인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Mon	Tue	Wed
1 ● 전시 <에코의 초상>(~8. 29) ● 전시 <Day and Night>(~9. 1) ● 전시 <Cosmic Dust>(~8. 1)	2 ● 공연 <피아포네 앙상블 정기연주회> ● 공연 <김시연 바이올린 독주회> ● 국악 <청춘만발>(~8. 7) ● 연극 <햄릿>(~8. 7) ● 연극 <그날의 타이밍 3>(~8. 31) ● 연극 <이 구역의 이기적인 X>(~8. 31)	3 ● 연극 <장미를 삼키다>(~8. 7) ● 연극 <뜨거운 사이>(~8. 7) ● 연극 <유난히 긴 식탁>(~8. 14) ● 연극 <호호탕탕 옥루몽>(~8. 14) ● 연극 <베이비 댄싱>(~8. 21) ● 연극 <브라보 마이 라이프>(~8. 21) ● 연극 <축하케이크>(~8. 7) ● 공연 <Down the Rabbit Hole>(~8. 4)
8 ● 공연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콘서트>	9 ● 공연 <한여름밤의 꿈> ● 공연 <소소한 클래식 & 친구들> ● 뮤지컬 <늦은 봄날>(~8. 14) ● 연극 <어디로 갈지 ㅁ>(~9. 13) ● 전시 <그림같은집을지어>(~8. 9) ● 전시 <Awesome>(~8. 9) ● 공연 <고기연&우희원 듀오 리사이틀>	10 ●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8. 10) ● 공연 <브람스의 저녁> ● 공연 <라하영 소프라노 독창회> ● 공연 <라경숙 플루트 독주회> ● 뮤지컬 <아일랜드>(~9. 18) ● 전시 <두 비트 사이의 틈>(~8. 10) ● 전시 <한 건축가의 사람, 이야기, 공간에 관한 낙서장>(~8. 10)
15 ● 뮤지컬 <마타하리>(~8. 15) ● 뮤지컬 <민짜미>(~8. 15) ● 뮤지컬 <버블J의 아쿠아쇼>(~8. 15) ● 뮤지컬 <반짝반짝 달남이>(~8. 15) ● 연극 <봄봄봄>(~10. 16) ● 전시 <조각충동>(~8. 15) ● 전시 <On Gravity>(~8. 15) ● 전시 <그리드 아일랜드>(~8. 15) ● 전시 <제9회 시민청 도시사진전>(~8. 15)	16 ● 국악 <모돌전>(~8. 17) ● 연극 <퀸리어>(~8. 21) ● 뮤지컬 <안나 차이코프스키>(~10. 30)	17 ● 공연 <금난새의 클래식 데이트> ● 공연 <한국 가곡 세기의 콘서트> ● 공연 <2022 발트앙상블 정기연주회> ● 연극 <순례네 국밥>(~8. 28)
22 ● 뮤지컬 <웃는 남자>(~8. 22) ● 공연 <제4회 주벨 피아노 앙상블 정기연주회>	23 ● 공연 <낭만주의 거장 차이코프스키 & 라흐마니노프> ● 연극 <오셀로> ● 전시 <내면의 공간>(~8. 23) ● 전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8. 23)	24 ● 공연 <최정윤 플루트 독주회> ● 연극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남쪽나라>(~8. 28) ● 연극 <린다와 조이>(~9. 18)
29	30 ● 연극 <두 교황>(~10. 23) ● 뮤지컬 <미세스 닷아웃이어>(~11. 6) ● 연극 <오만과 편견>(~11. 20) ● 전시 <DayDream>(~8. 30)	31 ● 전시 <정형화되지 않은 도상>(~8. 31) ● 전시 <소소하게 반반하게>(~8. 31) ● 전시 <Planet in the Box>(~8. 31)

문화가 있는 날



Thu	Fri	Sat	Sun
4 ● 연극 <자연뽕>(~8. 7) ● 연극 <미제 사건>(~8. 7) ● 연극 <오늘 우리는 귀인을 만났다>(~8. 7) ● 연극 <길 위의 고양아>(~8. 14) ● 전시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11. 13) ● 전시 <경계지>(~8. 4) ● 무용 <타오르는 삶> 	5 ● 연극 <열아홉 문유수>(~8. 7) ● 연극 <레 미제라블>(~8. 15) ● 연극 <소실>(~8. 21) ● 연극 <붉은머리 안>(~8. 28) ● 뮤지컬 <알피>(~9. 4) ● 뮤지컬 <미드나잇>(~9. 5) ● 무용 <콤비네이션>	6 ● 전시 <INTO Light>(~8. 6) ● 전시 <Rendering Mind>(~8. 6) ● 전시 <와썹와썹 자라게>(~8. 6) ● 전시 <Texture of Light>(~8. 6) ● 전시 <Meet Me in the Middle>(~8. 6) ● 전시 <변주>(~8. 6) ● 전시 <저녁의 시간>(~8. 6) ● 무용 <생 날 몸동아리>	7 ● 연극 <더 헬멧>(~8. 7) ● 전시 <파라노말 오페라>(~8. 7) ● 연극 <밤의 찬가>(~8. 7) ● 연극 <예외와 관습>(~8. 7) ● 연극 <헬릿, 죽은 자는 말이 없다>(~8. 7) ● 연극 <벚의 별을>(~8. 7) ● 전시 <안과 밖>(~8. 7) ● 전시 <The Imperceptible>(~8. 7) ● 전시 <정원과 정원>(~8. 7) ● 전시 <저녁의 시간>(~8. 7) ● 연극 <예외와 관습>(~8. 7)
11 ● 공연 <박종화 피아노 리사이틀> ● 공연 <썸머 무비 콘서트> ● 연극 <고고보이>(~8. 21) ● 연극 <안티고네>(~8. 21) ● 전시 <마음의 지층>(~8. 11) ● 공연 <바람불다> ● 공연 <이든 콰르텟 리사이틀>	12 ● 전시 <빈틈없는 덩어리>(~8. 12) ● 무용 <콜렉티브 비해비어>(~8. 14) ● 연극 <그날, 그날에>(~8. 14) ● 연극 <붉은 낙엽>(~8. 15) ● 연극 <장화 신은 고양이>(~9. 18) ● 뮤지컬 <서편제>(~10. 23) ● 전시 <Alter Ego>(~8. 12) ● 공연 <Born by Gorgeousness>	13 ● 연극 <헬릿>(~8. 13) ● 공연 <김다미, 김규연 듀오 리사이틀> ● 전시 <현대의 신화>(~8. 13) ● 전시 <흙의 변이 Nature-Made>(~8. 13) ● 공연 <더 드리머, 드림 랜드>(~8. 14) ● 연극 <깡생소>(~8. 15) ● 뮤지컬 <인간 탐구생활>(~8. 28) ●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10. 30) ● 공연 <신노이의 신심방곡> ● 무용 <명가월륜>	14 ● 뮤지컬 <모래시계>(~8. 14) ● 뮤지컬 <포미니츠>(~8. 14) ● 뮤지컬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8. 14) ● 연극 <임대아파트>(~8. 14) ● 뮤지컬 <트니트니 탐험대>(~8. 14) ● 연극 <제6회 미스터리 스텔라전>(~8. 14) ● 뮤지컬 <스페이스 딜리버리>(~8. 14) ● 전시 <Act.2 Kairos Time>(~8. 14)
18	19 ● 공연 <홍유진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얼 김 - 오렌지 입술의 소녀> ● 뮤지컬 <원더보이>(~8. 27) ● 연극 <더 테이블>(~8. 28) ● 탈춤극 <아가멤논>(~8. 21)	20 ● 공연 <토너스콰르텟 연주회> ● 뮤지컬 <적벽>(~9. 29) ● 전시 <Mare Nostrum>(~8. 20) ● 전시 <가라앉는 몸>(~8. 20) ● 전시 <WONDERLAND: Colorful Queendom>(~8. 20) ● 전시 <여기는 우리 땅이야>(~8. 20) ● 전시 <로켓 팩토리 페인팅>(~8. 20) ● 전시 <소리의 틀>(~8. 13) ● 공연 <Evolving>	21 ● 뮤지컬 <니진스키>(~8. 21) ● 뮤지컬 <난세>(~8. 21) ● 연극 <비평가>(~8. 21) ● 뮤지컬 <변지점프를 하다>(~8. 21) ● 공연 <서지현 첼로 독주회> ● 공연 <김지현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당 타이 손 피아노 리사이틀> ● 전시 <동베를린의 사진가>(~8. 21) ● 전시 <FOREVER FREE>(~8. 21)
25 ● 국악 <경기도무용단 본> ● 연극 <청산에 살아있다>(~8. 28) ● 연극 <밀정리스트>(~9. 4) ● 뮤지컬 <엘리자벳>(~11. 13) ● 전시 <귀한불능지점>(~8. 25) ● 전시 <WHY SO SERIOUS?>(~8. 25)	26 ● 공연 <뷔에르 앙상블> ● 공연 <싸구려 인공지능의 노랫말 2>(~8. 28)	27 ● 공연 <오연택 피아노 리사이틀> ● 무용 <댄싱뮤지엄> ● 공연 <누리 콜렉티브> ● 뮤지컬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8. 28) ● 뮤지컬 <마법경찰 매직잡>(~8. 28)	28 ● 연극 <기억의 숲>(~8. 28) ● 뮤지컬 <수박 수영장>(~8. 28) ● 뮤지컬 <대결! 최고의 이발사>(~8. 28) ● 전시 <TIM BENGEL>(~8. 28) ● 전시 <공예, 낯설게 하기>(~8. 28) ● 뮤지컬 <타루와 리나>(~8. 28) ● 뮤지컬 <드라큘라 치과>(~8. 28) ● 공연 <선정원 피아노 독주회> ● 전시 <PEACE for CHILD>(~8. 28)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QUAD

개관 페스티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가변형 블랙박스 대학로극장 퀴드가 개관했다.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6주간 클래식부터 재즈, 연극, 무용, 전통음악, 다원 등 다채로운 12개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일시 7월 21일(목)~8월 28일(일) |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 관람료 개관 기념 50% 특별 할인가 1만 5천 원(*퀴드 홈페이지 예매 시 5천 원 추가 할인, 관람연령·공연별 상이, www.quad.or.kr 홈페이지 참조) | 문의 1577-0369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사진전시회 <제9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멋진 하루로 기억되는 보통의 순간’을 주제로 사진전 공모에 선정된 43점의 시민예술가 사진 작품과 일상의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를 전시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시 7월 15일(금)~8월 15일(월), 체험존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일요일 휴관) | 장소 서울시장 시민청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39-5818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공연 <서울 스테이지11>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예술공간 콘서트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 공간을 무대로 클래식, 무용, 북 콘서트, 국악,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일시 8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금천예술공장,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무용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청년예술청 |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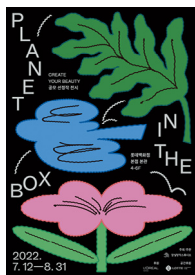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창립 15주년 특별기획전

<맞혀진 모든 것들을 위하여>

구로 산업의 시작이 섬유와 봉제 산업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봉제인형을 선보인다. 더불어 구로문화재단 사진도 함께 선보인다. 종이인형놀이, 인형뽑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시 8월 2일(화)~9월 4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갤러리 구루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029-1751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전시 <Planet in the Box>

서울문화재단과 로레알코리아의 장애예술인 친환경아트공모전 <CREATE YOUR BEAUTY> 수상작 전시다. 고정관념의 상자에서 벗어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만나는 기회다.

일시 7월 12일(화)~8월 31일(수) | 장소 롯데백화점 본관 본점 4~6층 | 관람료 무료 | 문의 02-423-6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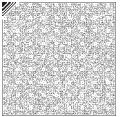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뮤지컬인형극 <삐노키오>

한국적 감성에 이탈리아의 색채를 담은 뮤지컬인형극이다. 인형을 통해 구현하는 피노키오의 환상적 스토리에 다채로운 음악이 어우러진다.

일시 8월 11일(목)~12일(금) 오전 10시 30분, 13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5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료 전석 2만 원 | 문의 02-2029-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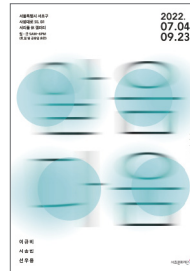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브런치콘서트 <여행자의 노래>

브런치콘서트는 매달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관객에게 공연장을 찾는 기쁨을 선사한다. 8월 <여행자의 노래>를 통해서서는 하림, 호란, 집시앤피쉬오케스트라와 여행하듯 떠나는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일시 8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2-2029-1721



서초문화재단

전시 <알.음.다.음.展>

<알.음.다.음.展>은 '유리'라는 소재가 지닌 물성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전시다. 신형록이 기획하며 선우용, 서승빈, 이규비가 참여작가로 함께한다.

일시 7월 4일(월)~9월 23일(금)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토일·공휴일 휴관) | 장소 심산기념문화센터 B1 서리홀 休 갤러리 | 대상 전체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www.seochocf.or.kr



구로문화재단 Guro Cultural Foundation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서울시향의 찾아가는 콘서트 <우리동네 음악회>는 영화,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음악에 해설을 함께 제공해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시 8월 31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오류아트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14-7961



서초문화재단

전시 <서초동 매미展>

집, 욕망, 예술가라는 직업의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다. 박종일이 기획하고 김지용, 신호철, 심은지가 참여작가로 함께한다.

일시 8월 5일(금)~9월 1일(목)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폴청년아트갤러리 | 대상 전체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seoripulgallery.com



서초문화재단

SSUM 타는 콘서트 <What a Wonderful Jazz>

라틴, 재즈 장르의 이색 여름 콘서트다. 18일에는 재즈보컬리스트 김혜미가 한여름 밤 감미로운 재즈음악으로 관객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25일에는 난아진과 밴드 메건이 신나는 무대를 장식한다.

일시 8월 18일, 25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www.seochocf.or.kr



서울특별시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 77주년 기념음악회>

광복절 여름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준비한 <광복 77주년 기념음악회>가 새로 개장하는 광화문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김선욱이 지휘하며 월드비전합창단, 포르테 디콰트로가 출연한다.

일시 8월 14일(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야외무대 | 대상 전체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700-6396(서울시향), 02-2133-2527(서울시)



서울특별시

공연 <한여름의 메시아>

세종문화회관이 8월 9~10일 오후 7시 30분 세종체임버홀에서 서울시합창단의 <한여름의 메시아>를 선보인다. 헨델의 '메시아'와 하이드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 등을 합창한다.

일시 8월 9~10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세종체임버홀 | 대상 만 7세 이상 | 관람료 3만 원(※초·중·고교생 50% 할인) | 문의 02-399-1000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연극 <축하케이크>

세대 갈등, 젠더 갈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연극이다. 소통이 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각자의 말만 하는 남성과 여성을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낸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결국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와 청년,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통해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을 유쾌하게 전달한다.

일시 8월 3일(수)~7일(일) | 장소 플랫폼74 | 관람료 3만 원 | 문의 인스타그램 @bplayce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연극 <예외와 관습>

관습에 충실한 상인이 길잡이와 짐꾼 쿨리와 사막을 건넌다. 상인은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었던 길잡이가 짐꾼과 친해지자 길잡이를 해고한다. 짐꾼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모진 학대에도 불구하고 상인과 함께 길을 간다. 물이 점점 떨어지자 상인은 계속 불안해하고 급기야 물을 주려고 다가오는 짐꾼을 죽이고 만다. 재판을 받게 된 상인은 관습에 충실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한다.

일시 7월 21일(목)~8월 7일(일) | 장소 씨어터 콤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10-9211-9213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신용식 개인전 <한 건축가의 사람, 이야기, 공간에 관한 낙서장>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건축을 업으로 삼고 있는 건축가 신용식의 개인전이다. 지난 6년간 '사람'과 '이야기'와 '건축'을 주제로 남긴 수많은 낙서 중 일부를 추려 공개한다.

일시 7월 20일(수)~8월 10일(수) | 장소 공간지은 | 관람료 무료 | 문의 0507-1388-0280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공연 <Down the Rabbit Hole-정화된 밤>

'Down the Rabbit Hole'은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기가 왔다는 뜻이다.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의 기획공연 <Down the Rabbit Hole-정화된 밤>은 현실의 혼란과 혼돈에 대한, 조금 더 나아가 환각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개인의 삶 안에 숨겨둔 내적인 혼란과 사회 안에서 빛어지는 혼돈, 환각에 빠져 있을지 모를 나와 당신의 모습을 탐닉한다.

일시 8월 3일(수)~4일(목) |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문의 010-3129-4243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공연 <이든 콰르텟 리사이틀>

바이올린 정주은·임동민, 비올라 임지환, 첼로 정우찬으로 구성된 이든 콰르텟의 첫 리사이틀이다. 현악 사중주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하이든 현악 사중주 5번 작품 64 '종달새', 베베른의 명작인 현악 사중주를 위한 다섯 개의 악장, 베토벤 후기 현악 사중주 중 하나인 13번까지 실내악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일시 8월 11일(목) | 장소 롯데콘서트홀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780-5054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공연 <명가월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파생하고 발전한 전통춤을 계승하기 위해 무용가들이 모여 2021년 결성한 예술단체 서울경기춤연구회가 <명가월륜>을 준비했다. 한성준, 명가 강선영, 월륜 조흥동으로 이어진 전통춤의 맥을 이어나간다.

일시 8월 13일(토) 오후 4시, 7시 30분 |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 문의 010-2987-4980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공연 <고기연&우희원 듀오 리사이틀>

신시내티 음악대학에서 임원빈을 사사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공유해 온 고기연과 우희원이 듀오를 결성해 준비한 음악회다. 미국에서 실내악과 전문 오케스트라 등의 활동을 하며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일시 8월 9일(목) 오후 8시 | 장소 금호아트홀 연세 | 관람료 2만원 | 문의 02-585-2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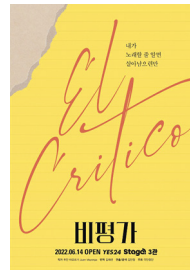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공연 <Evolving>

김이슬트리오, 리베로시스, 봉천동예술방 등을 통해 국악, 클래식, 재즈의 장르 간 경계 없이 폭넓게 활동해 온 작곡가 김이슬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과 함께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연주한다.

일시 8월 20일(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서교생활문화센터 | 관람료 2만 5천 원 | 문의 010-9991-2847



연극 <비평가>

진실한 연극, 세상의 거짓이나 소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연극을 기대하는 비평가 볼로디야는 날카롭고 혹독한 평론을 해왔다. 한때는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책 감옥에서 세상과 격리된 듯 지낸다.

일시 6월 14일(화)~8월 21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 장소 에스24스테이지 3관 | 대상 만 13세 이상 | 관람료 5만 5천 원 | 문의 02-742-9637



서울예술인회망캠페인

전시 <FUTURE FOOD · 허가 느끼는 고민>

디자이너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미래 식문화'의 양상을 다양한 미디어로 보여주며 스스로 생각해 볼 화두를 던진다. 현재의 소비 패턴을 지속할 때 야기될 기후변화, 식량 손실, 낭비 개선, 공장식 축산 등의 사회적 이슈를 쟁점으로 다뤘다.

일시 5월 18일(수)~12월 31일(토) | 장소 셀린박 갤러리 | 관람료 일반 1만 원, 학생 8천 원 | 문의 070-5222-3778



연극 <임대아파트>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춘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초현실적인 일들을 겪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일상의 고단함 속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던 희망과 청춘에 관한 응원을 전한다.

일시 7월 14일(목)~8월 14일(일) 월~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3시~6시 | 장소 연우소극장 | 대상 만 13세 이상 | 관람료 3만 5천 원 | 문의 1544-1555



연극 <연극열전9 - 터칭 더 보이드>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대한 설산, 냉혹한 대자연에 갇힌 공포, 그 공포를 이겨낸 생의 투지가 담긴 작품이다. 1985년 아무도 오르지 않은 페루 안데스산맥 시울라그란데의 서쪽 빙벽을 알파인 스타일로 등정한 영국인 산악가 조 심슨과 사이먼 예이츠의 생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일시 7월 8일(금)~9월 18일(일) 화·수·금 오후 8시, 목 오후 4시·8시, 토·일·공휴일 오후 3시·7시(※월요일 휴관) |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 대상 만 12세 이상 |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4천 원 | 문의 02-766-6007



전시 <아프리카 아트페어>

아프리카의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아프리카 미술계의 새 역사를 연 '팅가팅가', 채움과 비움이 천재적 조화를 이루는 '조엘 음파두', 휴머니티를 구현하는 낙천주의자 '헨드릭 릴랑가', 유목민 유전자를 동화적으로 표현한 '압두나 카사' 등 아프리카 대표 작가 4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7월 20일(수)~8월 31일(수) | 장소 도화서길 | 관람료 성인 1만 원, 청소년 8천 원, 5세 이하 무료 | 문의 02-722-0035



전시 <ART FOR GREEN : 공존을 향한 예술의 여정>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하는 첫 번째 기획전이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의 가치가 중요해진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예술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했으며 자연에 대한 참신한 시각을 갖춘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공모를 통해 전시작가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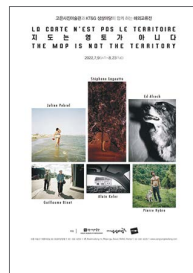
일시 7월 15일(금)~9월 3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장소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 문의 02-3456-5096



전시 <러시아 그림으로 만나는 푸른 빛>

국내 유일한 러시아 그림 전문 갤러리인 까르찌나에서 러시아 작가들의 회화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푸른 빛'으로, 찬란하고 독특한 색채를 통해 드러나는 러시아 작가들의 개성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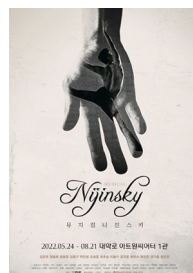
일시 7월 12일(화)~8월 28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30분(※월요일 휴관) | 장소 갤러리 까르찌나 | 문의 02-468-8878



전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KT&G 상상마당은 해외 사진가 6인의 작품 240여 점을 선보이는 기획전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를 개최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세상과 실재하는 세상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7월 9일(토)~8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오후 7시 30분(※월요일 휴관) | 장소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30-6229



뮤지컬 <니진스키>

뻔한 발레를 요구하는 관객에게 환멸을 느끼던 니진스키는 '발레 뤼스'의 단장인 디아길레프로부터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제안을 받고 발레 뤼스에 입단한다. 니진스키는 발레 뤼스에서 만난 천재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쓴 <페트루슈카>의 주인공으로 서며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다.

일시 5월 24일(화)~8월 21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월요일 휴관) | 장소 대학로아트원씨어터 1관 | 대상 14세 이상 |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 문의 02-556-5910

제9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멋진 하루로 기억되는

보통의 순간

2022.7.15.-8.15. 10:00-20:30
※ 일요일 휴관

서울시청 시민청 B1 및 서울도서관 외벽

42명의 전시 참여 시민예술가

강성기 김승희 권성우 김기환 김대영 김민지 김시우 김연철 김찬석 김창수 김홍열 문종국 박광원 박병갑 박수연 박정호 송승환 송지유 신승희 신지혜 안덕모
인종호 오서택 오성안 위은총 이계성 이정연 이정영 이정은 이창준 이현화 임지은 침윤실 전성일 정민호 정유상 조창섭 조현진 최승관 최원재 황선영 황영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엽서 링크
url.kr/wgl4zd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북서울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 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독자엽서

심유진 님(서울시 서초구)

1. [문화+서울] 애독자이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7월호도 잘 받았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춤in’ 코너의 메타버스 기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를 주제로 하는 기사는 이미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기사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앞으로 보편성을 띌 것이기에 오히려 지금만큼 자주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메타버스와 현실의 간극을 넷플릭스 시리즈 <러브, 데스+로봇>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가상 공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자본주의와 빈부격차 문제 등 다른 기사들과는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마치 여행을 온 것 같은 이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 후기

이제는 애독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au revoir!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NFT에 반 발짝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n번째 안녕, n번째 시작 :)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문화+서울]과 10여 년을 함께한 분이 떠나고, 10년이 넘는 인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Now, Fly Time~ (NFT...?) 장보영 객원 기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영수 객원 기자

7.21 THU

JUST BACH

몰토 콰르텟
MOLTO Quartet

7.22 FRI

Classic in QUAD

이명주 박종해 조진주
이재형 신경식 이호찬

7.23 SAT

**A Dream in the
Summer Night**
MOON (혜원)

7.29 FRI-7.31 SUN

Oil
극단 풍경

8.4 THU

제 ver.2 <타오르는 삶>
99아트컴퍼니

8.5 FRI

COMBINATION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8.6 SAT

생 날 몸뚱아리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8.11 THU

전통한류 '바람불다'
Silkroad Music Friends

8.12 FRI

Born by Gorgeousness
HAEPARY

8.13 SAT

신노이의 新심방곡
신노이

8.19 FRI-8.21 SUN

풍편에 너를 들은 <아가멤논>
천하제일탈공작소

8.26 FRI-8.28 SUN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랫말2
(로봇야상곡)**
권병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QUAD 개관 페스티벌

2022.7.21 THU
-8.28 SUN



서울문화재단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티켓 전석 30,000 원 ● 예매처 www.quad.or.kr 인터파크 클립서비스 YES24 티켓링크 ● 문의 1577-0369



창작집단 인사리 <끼리?>(서울 스테이지11) | 배리어프리 인형극 | 2022

테마 토크

원본의 가치를 인증하다

이슈 1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쟁점

이슈 2

세계가 주목하는 K-클래식의 오늘

문화인

아티스트 이랑

8월의 서울문화매뉴얼